

동아시아 헤게모니 역사와 한국의 미래*

현인택**

- I. 서론
- II. 헤게모니의 어원과 개념의 이론적 발전
- III. 중국 헤게모니의 흥망성쇠
- IV. 일본의 헤게모니 부상과 쇠퇴
- V. 미국의 헤게모니 시대의 흥망성쇠
- VI. 부상하는 중국의 헤게모니
- VII. 한국의 미래에 대한 전략적 함의

주제어: 헤게모니, 강대국 흥망성쇠, 미국의 헤게모니, 중국의 부상, 한국의 전략

| 국문초록 |

동아시아의 19세기, 20세기, 21세기는 헤게모니 흥망의 역사이다. 이러한 헤게모니 흥망 성쇠의 역사에서 과연 한국과 같은 약소국의 운명은 어찌 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등장할 동아시아 헤게모니 체제에서는 또 어찌 될지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다. 이러한 질문을 위해서 과연 19세기, 20세기, 21세기에서 순차적으로 등장하는 중국, 일본, 미국의 헤게모니 체제의 특징은 무엇이며 이러한 헤게모니 질서 속의 국가 간의 관계, 특히 헤게모니 국가와 약소국과의 관계는 어떠하였는가 또한 매우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없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첫째, 헤게모니에 대한 개념 및 이론적 연구들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고, 둘째, 19세기 중반 이후 동아시아 헤게모니의 변천에 대한 역사적 접근을 통해 중국, 일본, 미국의 헤게모니의 성격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셋째, 21세기 현재 미국의 헤게모니 퇴조와 중국의 부상을 둘러싼 학계의 논쟁을 통해 현재의 헤게모니 실상에

† 『국제관계연구』 제22권 제2호 (2017년 겨울호).

<http://dx.doi.org/10.18031/jip.2017.12.22.2.5>

* 이 논문은 동북아역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EAHF-2017 한일-자유주제-3-4).

**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대해서 분석하였다. 넷째, 미래의 헤게모니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헤게모니 시대에 있어서 한국은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첫째, 향후 국제체제에서 헤게모니 체제의 출현이 불가피하다. 다만 향후 50여 년 안에 미국적 질서가 중국적 헤게모니 질서에 완전히 자리를 물려주는 그런 대변환을 일어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미·중의 헤게모니 쟁탈전이 치열해질수록 그 과정에서 국제질서의 안정성은 취약해질 것이고 그 속에서 갈등의 발화점에 서 있는 국가는 위기에 빠질 수 있다. 한국에게는 당연히 안정적 헤게모니 질서보다도 불안정한 헤게모니 변화의 시기가 더 위험한 것이다. 둘째, 어떠한 헤게모니 체제여도 헤게모니의 두 가지 성질 중 강압에 의한 헤게모니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과거의 제국주의적 헤게모니 체제의 재출현을 의미한다. 셋째, 향후 이 지역에서 어떠한 헤게모니 체제가 등장하더라도 한국은 '문명적 지역선도 국가'로 발돋움해 나가야 한다.

I. 서론

동아시아의 19세기, 20세기, 21세기는 헤게모니 흥망의 역사이다. 오랫동안 중국의 헤게모니하에 있던 동아시아는 19세기에 들어와서 청조의 쇠락과 함께 동아시아 국제정치의 변혁기를 맞게 된다. 19세기 중엽 아편전쟁을 계기로 청조의 동아시아 헤게모니는 근본적인 변화를 겪게 된다. 한편으로 일본은 비슷한 시기에 메이지 유신을 통해 새로운 국가로 거듭난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벌어진 청일전쟁, 러일전쟁, 그리고 한반도의 일제 강점으로 일본은 동아시아의 새로운 헤게모니 국가로 등장하였다.¹⁾ 그리고 그러한 일본의 헤게모니는 청일전쟁을 거쳐 태평양전쟁의 패배로 지리적으로는 동아시아 국가가 아닌 미국의

1) 동아시아의 근현대사에 관해서는 요시자와 세이이치로 저, 정지호 옮김, 『중국근현대사 1: 청조와 근대 세계』(삼천리, 2013); W. G. 비즐리 저, 장인성 옮김, 『일본 근현대 정치사』(을유문화사, 1999); W. G 비즐리 저, 정영진 옮김, 『일본제국주의 1894-1945』(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13); 후지와라 아키라 저, 엄수현 역, 『일본군사사』(시사영어사, 1994); 강동진, 『일본군대사』(한길사, 1985); Claude A. Buss, *Asia in the Modern World*(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1967); Meribeth E. Cameron, Thomas H. D. Mahoney and George E. McReynolds, *China, Japan and the Powers*(New York: The Ronald Press Company, 1952); Richard Connaughton, *Rising Sun and Tumbling Bear: Russia's War With Japan*(London: Cassell, 2003) 등을 참조.

헤게모니 시대를 탄생케 하는 동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동아시아 헤게모니의 흥망성쇠는 21세기 중국의 발흥으로 다시 한번 그 순환이 바뀔지도 모르는 역사적 과정에 들어서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헤게모니 흥망성쇠의 역사에서 과연 한국과 같은 약소국의 운명은 어찌 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등장할 동아시아 헤게모니 체제에서는 또 어찌 될지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다. 이러한 질문을 위해서 과연 19세기, 20세기, 21세기에서 순차적으로 등장하는 중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의 헤게모니 체제의 특징은 무엇이며 이러한 헤게모니 질서 속의 국가 간의 관계, 특히 헤게모니 국가와 약소국과의 관계는 어떠하였는가가 또한 매우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다면 과연 다가오는 헤게모니 체제하에서 약소국은 헤게모니 국가와의 관계를 설정할 때 어떻게 국가로서의 독립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그 국제체제 속에서 안정과 번영 및 평화를 누리고 살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첫째, 헤게모니에 대한 개념 및 이론적 연구들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고, 둘째, 19세기 중반 이후 동아시아 헤게모니의 변천에 대한 역사적 접근을 통해 중국, 일본, 미국의 헤게모니 성격과 특징을 살펴볼 것이다. 셋째, 21세기 현재 미국의 헤게모니 퇴조와 중국의 부상을 둘러싼 학계의 논쟁을 통해 현재의 헤게모니 실상에 대해서 분석할 것이다. 넷째, 미래의 헤게모니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헤게모니 시대에 있어서 한국은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분석할 것이다.

II. 헤게모니의 어원과 개념의 이론적 발전

헤게모니는 전 인류의 역사에서 끊임없이 나타나는 매우 보편적인 현상이다. 헤게모니는 국제사회에서 특히 약소국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어떠한 헤게모니나에 따라 그 헤게모니가 속해 있는 국가들의 운명은 크게 갈렸다. 따라서 헤게모니의 성격에 따라 국제정치와 국가의 관계를 설정케

함으로써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왜 ‘헤게모니라는 개념인가’의 질문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예를 들어 제국주의(imperialism), 제국(empire)보다 포괄적이고 보다 가치중립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인다. 제국주의나 제국이란 개념을 가지고 19세기, 20세기, 21세기에 나타나는 헤게모니 현상을 다 포괄해서 설명하기는 어렵다.²⁾

1. 헤게모니 어원

헤게모니란 용어는 거의 세계사의 궤적과 그 근원을 같이 한다. 앤더슨(Anderson)에 의하면 헤게모니의 어원은 그리스에서 처음 나온 것으로 헤로도토스의 저작에서 처음 쓰였다고 한다. 즉 “‘헤게모니아(hegemonia)’는 공동의 군사적 목적을 가지고 도시국가들의 동맹의 리더십—즉, 그리스에 대한 페르시아의 침략에 대항하기 위해 스파르타에 부여된 일종의 명예직인—을 표현하기 위한 말로 처음 쓰였다”³⁾는 것이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그 멤버들이 동등한 지위를 갖는 연맹의 아이디어에서 나왔다. 또한 영국의 유명한 자유주의 역사가인 그로트(Grote)는 그의 저서 『그리스 역사(History of Greece)』에서 헤게모니아는 자유롭게 ‘결속(attachment)이나 동의(consent)’에 기반을 둔 리더십이라면 ‘아르케(arkhe)’는 제국의 ‘우월한 권위와 강압적 위엄’을 의미한다고 이 둘 사이를 구별하였다. 투키디데스는 그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서 이 둘 사이를 구별하면서 아테네가 펠로폰네소스전쟁의 원인으로 아테네가 ‘헤게모니아’에서 ‘아르케’로 간 것을 비판하였다.⁴⁾

앤더슨에 의하면 헤게모니란 용어는 로마시대 이래로는 거의 쓰이지 않았다고 한다. 심지어 투키디데스를 번역한 홉스도 그 말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2) 물론 니얼 퍼거슨은 그의 저서에서 19세기 영국 제국을 분석하면서 이것의 20세기의 미국을 분석하는 준거의 틀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Niall Ferguson, *Empire: The Rise and Demise of the British World Order and the Lessons for Global Power* (New York, NY: Basic Books, 2002).

3) Perry Anderson, *The H-Word: The Peripeteia of Hegemony* (London, New York: Verso, 2017), p. 1.

4) Anderson (2017).

이 말이 현대에 쓰이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중반 이후로 보았다. 즉 앞서 언급한 영국의 역사가 그로트에 의해서 처음 쓰였으며, 영국의 더 타임스가 1860년에 프러시아의 열망을 ‘독일 연방의 헤게모니’로 표현함으로써 처음 썼다. 특히 1848년 혁명 이후 독일의 비스마르크 시대에 프러시아의 역할을 언급하면서 ‘헤게모니’가 종종 쓰였다는 것이다.⁵⁾

20세기에 들어서 헤게모니란 용어는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쓰이기 시작했다. 즉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 국가 내의 계급의 정치적 관계를 묘사하는 용어로 쓰인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탈리아 공산당을 창당한 안토니오 그람시이다. 레닌 등의 전통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러시아에서의 절대왕정에 대항한 볼셰비키 혁명 당시 부르주아 계급이 아니라 노동자 계급의 역할을 강조한 반면, 그람시는 서구 유럽은 러시아와 달리 혁명과정에서의 계급들의 역할을 통합적으로 보았다. 따라서 전통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노동자계급의 절대왕정에 대항하는 ‘프롤레타리아 헤게모니’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그람시는 부르주아의 역할도 강조하면서 그의 저작 『옥중수고(Prison Notebooks)』에서 헤게모니는 동의에 의해서 생겨나는 권력과 강제에 의해서 생겨나는 권력이 합쳐진 형태로 보았다. 즉 헤게모니는 “동의 없이 생각할 수 없고, 강제 없이 행사할 수 없는 혼합적인 것”⁶⁾으로 보면서 ‘이데올로기적 헤게모니’ 개념을 창출하였다.

2. 국제정치에서 헤게모니 논쟁

국제정치학에서 헤게모니에 대해 논의가 시작된 것은 찰스 킨들버거(Charles Kindleberger)에 의해서다. 킨들버거는 헤게모니를 ‘국제체제에서 한 국가가 그 체제를 책임지는(responsibility) 체제’로 설명한다.⁷⁾ 이것은 보통 국제정치학자들이 헤게모니를 국제체제에서 한 국가의 ‘지도적 위치(leadership)’를 표현하는 것과 다소 구별된다. 킨들버거는 이러한 개념적 정의를 가지고 1929년 공황에

5) Anderson (2017), pp. 7-11.

6) Anderson (2017), p. 23.

7) Charles P. Kindleberger, *The World in Depression 1929-1939* (Berkeley, Los Angeles, and Lond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3), p. 289.

서 미국과 영국이 그 당시 국제체제를 지탱하는 책임성을 가지고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제체제가 붕괴되었다고 설명하면서 소위 ‘헤게모니 안정이론’의 기반적 논의를 제공한다. 코헤인과 나이는 “헤게모니 국가를 국제관계를 지배하는 기본적 규칙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힘과 의지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싫으면 그 규칙을 바꿀 수 있고, 또 다른 나라에 강요도 할 수 있다고 보면서 그런 헤게모니 체제에서 헤게모니 국가는 긍정적이며 부정적인 힘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정의한다.⁸⁾ 코헤인은 헤게모니가 오로지 국가의 이해와 권력(interests and power)의 관점에서 정의되는 현실주의적인 헤게모니 안정이론을 비판하면서 “헤게모니는 어떤 종류의 협력을 가능하게 할 수 있고, 그러나 그러한 협력을 만드는 데 헤게모니가 꼭 필요조건이나 충분조건은 아니다”라고 설명하면서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헤게모니 안정이론을 설명한다.⁹⁾

이와 반면에 국제정치학에서 이론적 발전에 한 획을 그은 길핀은 역사상 국제체제를 규정하는 구조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한 국가가 지배하는 체제, 즉, 제국주의적이거나 헤게모니 체제이고 둘째는 양극체제, 그리고 셋째는 다극체제라 보았다. 길핀은 19세기 ‘팍스 브리테니카’와 20세기 ‘팍스 아메리카나’만이 과거의 ‘팍스 로마니카’에 비견될 헤게모니 국가라 보았다. 더욱이 이러한 헤게모니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헤게모니전쟁이 불가피하다면서 헤게모니전쟁 이론의 기초를 세웠다.¹⁰⁾

이에 반해 미어샤이머는 헤게모니를 어느 한 국가가 국제체제에서 다른 모든 국가를 지배할 정도로 강한 국가라 정의하면서 ‘글로벌 헤게모니 국가’와 ‘지역적 헤게모니 국가’로 구분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글로벌 헤게모니 국가는 말 그대로 국제체제에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유일한 헤게모니 국가이고 지역적 헤게모니 국가는 예를 들어 유럽, 동아시아, 서반구의 지역에서 헤게모니 국가를 의미한다. 미국도 글로벌 헤게모니 국가가 아니고 서반구에서의 지역적 헤게

8) Robert O. Keohane and Joseph S. Nye, *Power and Interdependence*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1977), p. 43.

9) Robert O. Keohane, *After Hegemony: Cooperation and Discord in the World Political Econom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4), p. 31.

10) Robert Gilpin, *War and Change in World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1), p. 29, 129, and chapter 5.

모니 국가이고 19세기 중반 영국도 헤게모니 국가로 불렸으나 헤게모니 국가가 아니라고 주장한다.¹¹⁾ 이처럼 국제정치학에서의 헤게모니의 개념은 현실주의자와 자유주의자들에 의해 썩짐으로써 권력과 이해, 협력이라는 이 두 학파의 이론에 따라 개념화되면서 발전하였다.¹²⁾

탈냉전 이후 미국의 국제정치학계를 중심으로 90년대에 걸쳐서는 소위 왈츠와 미어샤이머 등의 구조적 현실주의 학파들의 다극체제에 관한 주장과 논의가 이어지고, 또 다른 현실주의자인 윌포스 등에 의해 미국의 일극체제(*uni-polarity*) 주장이 나오면서 지난 20여 년의 국제정치의 논쟁은 일극체제에 관한 논쟁이 담론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일극체제에 관한 논쟁은 헤게모니와 세력균형, 헤게모니의 지속성, 헤게모니의 관리, 헤게모니의 제도와 이데올로기 등으로 보다 세분화된 주제들로 넘어가면서 국제정치 논쟁을 더 한층 폭넓고 깊게 만들었다.¹³⁾

11) John J. Mearsheimer,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New York, NY: W. W. Norton & Company, Inc., 2001), pp. 40-42.

12) 많은 학자들이 헤게모니에 대해 정의했는데 예를 들어 크래스너(Krasner)는 헤게모니를 “단 하나 지배국가의 존재로, 러셋(Russett)은 ‘구조적 세력’으로 이해하면서 ‘다른 국가들이 어떤 결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는 맥락을 좌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국가’로 정의한다. 또한 모델스키(Modelski)는 ‘국제체제를 1세기 또는 2세기 정도는 지배하는 세계 지도국’으로 정의하면서 ‘이러한 지도국은 체제를 통치할 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이 따르는 행위패턴을 세우며 그러한 통치는 강압적일 뿐 아니라 합법적이기까지 하다’는 것이다. 미어샤이머(Mearsheimer)는 헤게모니 체제에서는 오직 1개국의 강대국만이 존재하며 이 체제하에서 나머지 국가들은 이 강대국의 통치에 따라야 하며 그에 도전할 수 없다고 본다. Stephen D. Krasner, “State Power and the Structure of International Trade,” *World Politics*, Vol. 28 (April 1976); Bruce Russett, “The Mysterious Case of Vanishing Hegemony: Or, Is Mark Twain Really Dead?”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39, No. 2 (Spring 1985); George Modelski, *Long Cycles in World Politics* (Seattle, Washington: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85); John Mearsheimer, “Back to the Future: Instability in Europe After the Cold War,” *International Security*, Vol. 15, No. 1 (Summer 1990), pp. 13-14. 현인택, “탈냉전과 평화,” 이상우·하영선 공편저, 『현대국제정치학』 (서울: 나남출판, 1992), pp. 251-254 참조.

13) G. John Ikenberry, “Introduction,” in G. John Ikenberry (ed.), *America Unrivaled: The Future of the Balance of Power*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2002), pp. 1-26. 참고로 이 책에 포함된 논문들은 Kenneth N. Waltz, “Structural Realism after the Cold War.”; Charles A. Kupchan, “Hollow Hegemony or Stable Multipolarity?”; William C. Wohlforth, “U.S. Strategy in a Unipolar World”; Stephen M. Walt, “Keeping the World “Off-Balance”: Self Restraint and U.S. Foreign Policy””; Josef Joffe, “Defying History and Theory: The United States as the “Last Remaining Superpower””; Michael Mastanduno, “Incomplete Hegemony and

특히 21세기 들어서 중국의 부상이 현실화되면서 이에 대한 학계의 논쟁이 붓물 터지듯이 나오게 되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과연 중국이 부상하는가? 중국의 부상은 미국에게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가 미국의 학계에서 주로 논하고 있는 논제들이다. 본고에서는 이것에서 한 걸음 더 나가 이러한 헤게모니 논쟁 속에서 약소국인 한국은 어떻게 자리매김하고 전략적 대처 방안은 무엇인가? 특히 동아시아에서 헤게모니 역사의 함의는 무엇이며 미래는 어디로 갈 것인가가 가장 주된 질문이 될 것이다.

III. 중국 헤게모니의 흥망성쇠

19세기 중반 이후의 동아시아에서의 헤게모니 순환 사이클을 보면 대체로 네 가지 단계와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가 중국 헤게모니의 쇠퇴이다. 둘째는 일본 헤게모니의 발흥과 쇠퇴이다. 셋째는 헤게모니의 부재, 즉 양극체제의 등장과 쇠퇴이다. 마지막으로 미국 헤게모니의 등장이다. 첫째와 둘째 사이클은 길핀의 개념을 빌리면 헤게모니전쟁에 의해서 사이클이 전환되었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미국 헤게모니의 등장은 헤게모니전쟁 없이 일어났다. 그러한 의미에서 헤게모니 전쟁이론은 비판을 받아왔다. 현재 진행 중인 미국 헤게모니는 향후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전쟁 없이 진행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속에서 과거 동아시아의 제1, 2차 헤게모니 순환 사이클에서 희생양이 된 한국 등의 약소국의 운명은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가 우리의 관심사이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의문점을 풀기 위해서는 과거의 동아시아 헤게모니의 특징은 무엇이고 그것이 현재와는 어떻게 유사하고 또 다른가가 규명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Security Order in the Asia-Pacific”; G. John Ikenberry, “Democracy, Institutions, and American Restraint”; John M. Own IV, “Transnational Liberalism and American Primacy: Or, Benignity in the Eye of the Beholder”; and Thomas Risse, “U.S. Power in a Liberal Security Community.”

1. 중국 헤게모니의 네 가지 요인

동아시아 역사에서 중국은 오랫동안 이 지역의 헤게모니 국가로서 존속해왔다. 중국이 이러한 헤게모니를 상실하게 되는 19세기 중반까지 헤게모니를 유지할 수 있었던 원인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째, 지리적 요인, 둘째, 중국문명의 우수성, 셋째, 강력한 중앙집권체제의 확립과 지속, 넷째, 강력한 군사력과 외교술 등이다.

첫째로 지리적 요인이다. 중국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접근은 17세기까지는 극도로 제한되었다. 영국이 동인도 회사를 만든 것이 1600년이고, 비슷하게 네덜란드와 프랑스도 1~2년 시차를 두고 동인도 회사를 만들었다. 그렇지만 이것의 명칭이 의미하듯 ‘동인도’이지 정확히 중국은 아니었다. 그만큼 중국은 그 당시 유럽과 떨어져 있었고 따라서 유럽의 헤게모니 싸움과 떨어져 있을 수 있었고, 독자적인 영역을 가지고 세력과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지리적 이점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영국이 대영제국을 건설하고 막강한 해군력을 가진 이후의 일이다.

둘째, 유럽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근대화가 시작되기 이전 중국은 중국 고유의 문명을 바탕으로 동아시아에서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다. 중국문명은 지배이데올로기를 확립하기 위한 확고한 정치 이데올로기의 발전이 밑받침되어서 그 위에 중앙집권적 국가 지배체계를 확립한 결과이다. 중국의 정치 이데올로기는 주지하다시피 중국문명의 바탕을 만든 공자, 맹자, 순자, 노자, 장자 등의 중국 사상가들의 작품이다. 이들의 정치 이데올로기가 중국 역사에서 대대로 걸쳐 내려오면서 중앙집권체제의 기본 이데올로기로 승화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 특유의 관료 제도를 확립하였다. 인재 등용과 통치를 위해 체계적인 관료 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지속해 나갔다. 여기에 중국문명에서 빠질 수 없는 문화이 융성하였다. 시, 서화, 음악, 종교뿐 아니라 자기, 심지어 건축에 이르기까지 동양문명이 정수가 여기서부터 나왔다.¹⁴⁾ 이와 더불어 중국의 과학 기술, 넓은 영토, 풍부한 인구 등이 근대 이전까지 동양에서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게 된 원인이 되었다. 현대과학이 서구에서 17세기 중반 이후 발전했다는 사실에

14) 윌 듀런트 지음, 왕수석·한상석 옮김, 『문명이야기: 동양문명 1-2』 (민음사, 2011), pp. 337-481.

비추어 볼 때 그 이전까지는 중국의 과학 문명이 서구에 그렇게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발전했다는 의미도 된다. 이러한 서구에서의 과학의 발전은 산업혁명으로 이어지면서 정치, 경제, 군사, 사회 등 국가의 전 분야에 걸쳐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내는 초석이 되었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오히려 16세기 중반에 들어서면서 서구와의 접촉을 제한하였다. 예를 들어 중국 황제는 돛대가 여럿인 배를 띄우는 것조차 법으로 금지하였다.¹⁵⁾

셋째, 중국 역사에 있어서 끊임없이 나타나는 것은 강력한 중앙집권 통치에의 야망이다. 이미 기원전 7세기 춘추전국시대에서부터 그러한 열망에 의한 국가 간의 지배권 다툼이 2천 년 이상을 이어져 왔다. 중국 역사 자체가 중국민족 사이, 그리고 중국민족과 이민족 사이의 헤게모니 쟁탈전이어서 왔다. 이것이 기원전 2세기경 진시황에 의한 진(秦)의 통일국가 건설로 이어진다. 로마가 기원전 27년에 세워진 것을 감안할 때 중국에서는 그보다 훨씬 전에 통일제국이 생겨난 것이다. 이러한 제국은 수(隋), 당(唐), 원(元), 명(明), 청(淸)에 이르는, 때로는 이민족이 때로는 한족이 지배하는 헤게모니 국가들이 탄생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강력한 중앙집권적 통치체제와 무엇보다도 강력한 군사력이 뒷받침되는 제국이 탄생한 것이다. 이러한 군사 국가는 전쟁술과 전략을 발전시켰다. 그리고 그것이 중국 제국이 서구를 향한 제국의 확대에 기초가 되었다. 대표적인 것이 칭기즈칸에 의해 세워진 몽골제국, 즉 원나라이다. 원제국(1271~1368)은 1세기 남짓 밖에 존재하지 않았지만 중국 역사상 가장 강대한 제국이었다. 몽골제국은 서진하여 위로는 러시아의 일부, 서로는 독일과 폴란드, 그리고 헝가리를 유린하였고, 또한 이란, 조지아, 아르메니아 등 지금의 중동과 발칸 일대까지 그 영향력을 확대하였다. 그리고 동쪽으로는 주지하다시피 한반도를 침입하여 고려의 고종은 1232년 강화로 천도하고 대몽항쟁을 하여 거의 40년 이상을 몽골의 침입에 시달렸다. 1274년, 1281년에는 여몽연합군이 제1차, 2차 일본 원정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이것이 소위 가미카제(神風)로 알려진 것이다. 또한 중국이 자랑하는 것이 바로 정화의 남해원정이다. 1405년부터 1433년 사이 7차에 걸쳐 정화는 대규모 선단을 이끌고 동남아, 서남아의 해로를 개척하

15) 리처드 코치·크리스 스미스 저, 채은진 옮김, 『서구의 자멸: 서구문명을 만든 6가지 중심 사상의 붕괴』 (말글빛냄, 2008), pp. 117-134.

기도 하였다.

넷째, 이러한 강력한 중앙집권체제와 군사력을 바탕으로 중국은 주변 국가들을 복속시키거나 변방국가로 관리하는 외교술을 발휘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원과 고려, 명·청과 조선의 관계이다. 중국은 패권국가로서 때로는 강압적 힘으로, 때로는 부드러운 외교로 주변 국가들을 관리해 왔다. 주변 국가의 입장에서는 중국은 문명의 중심지로서 다양한 문물이 흘러나오는 원천임과 동시에 때로는 주권을 빼앗기고, 뿐만 아니라 수탈당하는 이중적 입장에 있었다. 대표적인 제국의 모습이 그것이다. 중국과 주변국 사이를 정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조공(朝貢)이다. 이것은 중화사상에서 나오는 것으로 중국의 황제가 천하를 통치할 권한을 부여받았고, 이러한 통치는 천자의 덕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따라서 주변국들은 이러한 관계에 따라 의례적 방문을 하는 것이 조공이다.¹⁶⁾ 그러나 조공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복속관계는 아니다. 청나라 때 조공이 가장 잘 확립된 시기이며 이때는 포르투갈이나 영국 사절의 방문도 중국은 조공으로 생각했다.¹⁷⁾

마지막으로 중국 제국의 흥망성쇠는 네 가지 국면을 거치면서 발흥, 성장, 쇠퇴한다. 첫째가, 왕조의 출현 시기인데 이 시기는 엄청난 전란의 후유증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생산량이 감소한다. 둘째, 새로운 왕조는 부흥을 위해 조세를 감면하고, 농업을 장려하고, 토목사업을 장려하여 국가가 부강한다. 인구가 증가하고 조세 수입도 늘어나면서 왕조가 부강한다. 셋째, 왕조가 번성하면 황실의 사치성 경비가 늘고 대외 전쟁 비용 또한 증가한다. 따라서 세액의 증가도 불가피해지고, 농민의 생활은 궁핍해지면서 사회가 불안해진다. 마지막으로, 궁정 내부의 권력 투쟁이 일어나고, 농민은 대규모 반란을 일으킨다. 그러한 혼란 속에서 왕조는 무너지고 지도층은 끝까지 권력다툼을 계속한다. 이러한 네 가지 국면이 중화 제국의 흥망에서 나타나는 기본적인 패턴이라 할 수 있다.¹⁸⁾ 특징적인 것은 19세기 중반까지 중화 제국의 흥망성쇠는 그 자체의 내적인 흥망성쇠의 반복이었는데 19세기 중반에 이르러 드디어 서구 제국의 중국으로의 진출

16) 유이사 다케오 저, 신미원 옮김, 『세계 5대 제국 흥망의 역사』(일빛, 1998), pp. 121-124.

17) 유이사 다케오 저, 신미원 옮김(1998), p. 123.

18) 유이사 다케오 저, 신미원 옮김(1998), pp. 112-113.

이 시작된 것이다.

2. 중국 헤게모니의 몰락

패권국가로서 중국 제국 몰락의 서막은 주지하다시피 1842년 영국과의 제1차 아편전쟁이다. 이 전쟁의 결과 난징조약이 맺어졌으며 홍콩을 영국에게 할양하고 광둥 외 5개의 항구를 개항하게 된다. 이러한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 무엇일까? 중국은 왜 오랫동안 동양의 헤게모니 국가로 이 지역을 지배해왔는데 이러한 헤게모니가 갑작스럽게 쇠퇴했는가? 그것은 앞서 언급한 다섯 가지 원인의 반대 현상의 결과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첫째로, 무엇보다도 지리적 이점이 사라졌다. 과거 서양과 동양 사이를 가로막았던 지리적 거리가 서양의 근대문명의 발달, 특히 항해 능력의 발전으로 인해 원거리 항해가 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막강한 해군력을 동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유럽인들의 도래가 아시아 시대의 종말을 고하게 된 것이다. 유럽인들의 팽창으로 더 이상 아시아인들이 외부 세계의 영향 없이 살 수 없게 된 것이다. 1498년 포르투갈을 시작으로 다음에는 스페인, 네덜란드가 순차적으로 인도와 인도차이나 반도에 들어오더니, 드디어 영국이 1839년 중국에 들어온 것이다. 이 기간 아시아인들은 유럽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 몰랐다. 유럽의 아시아 진출은 무역, 기독교 및 식민주의를 아시아에 가져왔다.¹⁹⁾ 특히 영국의 해군력은 19세기 들어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그것이 영국 제국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 아편전쟁의 원인은 중국과 서구 제국 사이의 무역 불균형이었다.²⁰⁾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중국시장에의 접근을 위한 서구 제국

19) Claude A. Buss, *Asia in the Modern World*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1967), pp. 87-106.

20) 케리 브라운 저, 김홍규 옮김, 『현대중국의 이해』 (명인문화사, 2014), pp. 59-60; 윌 듀런트 저, 왕수석·한상석 옮김 (2011), pp. 533-535. 18세기 말 청나라의 건륭 황제는 서구에서 만들어진 어떠한 상품도 중국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는 매킨니(Macartney)의 중국 방문으로 어느 정도 해소되는 듯했으나 그 이후 중국과 서구세계와의 무역의 불균형이 엄청나게 증가했다. 서구세계는 중국으로부터 향료, 비단 등을 수입했지만 중국은 서구세계로부터의 수입이 거의 전무하였다. 따라서 중국은 대금으로 받은 은을 엄청나게 보유하였다. 유럽

간의 경쟁이다. 아편전쟁을 중국이 ‘불평등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권리와 혜택이 영국과 서구제국에게 가고 중국은 얻는 것이 하나도 없는 조약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영국은 난징조약을 보완한 조약에서 중국으로부터 ‘최혜국’의 지위를 받아냈다.²¹⁾ 애로호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제2차 아편전쟁(1856~1860)의 결과 텐진조약(1858)이 맺어지고 영국뿐만 아니라 프랑스, 미국, 독일이 중국에의 접근이 허용되고, 그 후 베이징 조약(1860)을 통해서 홍콩의 더 많은 지역이 영국에 할양되었을 뿐 아니라 러시아도 연해주를 중재 대가로 얻었다. 아편전쟁 후 1860년대 중국제국은 외국의 침입과 국내 변란으로 완전히 쇠락하였다. 군대는 있으나 마나 하였고, 관료는 부패했으며 도둑과 해적이 난무하고 변방지역들은 이미 일본의 침입 이전에 완전히 황폐화되었다.²²⁾

둘째는, 중국문명의 쇠퇴와 서구문명의 발흥이 교차하면서 일어난 점이다. 중국문명은 11세기까지는 적어도 동양 문명의 정수로서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나 그만이였다. 이 시기에 즈음하여 중국문명은 더 이상 빛을 발하지 못하였다. 이에 반해 서구문명은 그 시기에 비약적인 발전을 시작하였다. 과학의 발달이 바로 그것이다. 13세기 말에 이르러 유럽의 과학은 이슬람과 중국의 과학을 능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15세기 르네상스 시대가 개막되면서 과학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주지하다시피 1609년 갈릴레오, 1687년 뉴턴의 만유인력법칙의 발견으로 근대 과학의 길을 열었다. 코치와 스미스는 “서구가 과학을 발전시킨 최초의 문명이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서구는 과학에 우선권을 줌으로써 경제 및 사회의 본질을 변화시키고, 서구 내의 보편적인 번영을 일궈내고, 이전까지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기술상의 기적을 만들어내고, 전 대륙을 정복할 수 있었다.”²³⁾고 설파한다. 그들에 의하면 “중국에는 경험과학에 대한 열의가 없었다. 논리적인 우주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이다.”²⁴⁾ 따라

상인들, 특히 영국 상인들은 이에 대해 해결책을 찾고자 했으며 그것이 바로 아편 수출이었다. 이 아편은 중국 사회에 엄청난 참상을 가져왔고 이에 분노한 청 황실은 군사력을 동원하여 이를 막고자 했다. 여기에 대응해 영국은 군함을 동원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제1차 아편전쟁이다.

21) 843년 10월의 보그조약(the Treaty of the Bogue)이다. Buss (1967), pp. 114-115; Meribeth E. Cameron, Thomas H. D. Mahoney and George E. McReynolds, *China, Japan and the Powers* (New York: The Ronald Press Company, 1952), pp. 173-175.

22) Cameron, Mahoney and McReynolds (1952), pp. 124-140.

23) 리처드 코치·크리스 스미스 저, 채은진 옮김 (2008), p. 126.

서 근대과학이 발달할 수 없었다. 이것이 문명의 극명한 차이를 낳았고, 그 차이는 헤게모니의 차이로 결과하였다. 따라서 19세기 중반 중국이 서구에 뒤처지고 서구의 제국들에게 침탈당한 것은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결과가 늦게 나타난 것일 수 있다.

셋째, 중국문명이 서구문명에 뒤처져 있었지만, 중국이 19세기까지 서구 제국에 의하여 침탈당하지 않았던 것은 서구 유럽의 정치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다. 영국은 18세기 중반까지 미국 문제로 골치가 아팠고, 프랑스는 1789년 혁명이 시작되어 1830년 7월 혁명, 1848년 2월 혁명을 거치면서 구체제가 변화하고 있었다. 영국과 프랑스는 서로 유럽의 주도권을 갖기 위해 헤게모니 쟁탈전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에 동양에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영국이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고 강력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제국의 모습을 제대로 갖추나간 시기가 바로 19세기 초반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중국은 거대한 인구와 군사력을 가지고 대륙세력 시대를 호령한 때도 있었지만, 과학의 발달이 뒷받침되어 지지 못하면서 특히 근대 이후의 헤게모니 세력의 군사력의 핵심인 해군력을 키우지 못함으로써 유럽 세력들에게 헤게모니 지위를 빼앗기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청나라는 수립 이후 거의 250년이 되어가면서 제국이 쇠퇴하였다. 앞서 지적한 중국 제국의 흥망성쇠의 네 가지 단계에서 네 번째 단계가 19세기 들어서면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아편전쟁으로 중국의 국가의 국제적 위상이 급격히 무너져 내리고, 더욱이 국내적으로는 1850년 태평천국의 난으로 체제가 속으로 굽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청조의 쇠락은 일부 지식인들에 의한 근대화의 필요성을 주창한 양무운동(1862~1894)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못하였다. 이미 제국은 내부가 썩어 들어가 자기 치유의 능력을 상실한 때문이다. 그리고 이어진 1884년 청·프랑스전쟁에서의 패배로 베트남을 프랑스에 잃고, 1894년 청·일전쟁에서의 패배, 국내적으로는 1898년 무술정변, 1899년 의화단 사건으로 청조는 쇠락의 마지막 길을 걷고 있었다.²⁵⁾

24) 리처드 코치·크리스 스미스 저, 채은진 옮김(2008), p. 128.

25) 요시자와 세이이치로 저, 정지호 옮김(2013).

IV. 일본의 헤게모니 부상과 쇠퇴

중국의 헤게모니의 쇠퇴는 이처럼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과한 것이다. 가장 중요하고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같은 동양에서 새로운 헤게모니 국가가 출현한다는 사실이다. 중국이 19세기 중엽 쇠퇴하는 헤게모니 국가로 전락하는 반면, 일본은 새로운 헤게모니 국가로 부상하는 계기를 맞이하게 된다. 그것도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서구 세력의 강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더욱 아이러니컬하다. 더욱이 제국의 흥망성쇠에는 반드시 외적 요인과 내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중국 제국의 쇠퇴에도 이러한 요인이 작동하였지만, 새로 부상하는 일본 제국주의도 어김없이 이러한 국내외적 요인들이 영향을 미쳤다.

1. 일본 제국주의의 국내적, 국제적 요인

무엇보다도 외적 요인, 국제적 요인이 일본 제국주의 출발의 시작이 되었다. 일본이 막부통치하에서 250년간 쇄국에서 벗어나 개항하게 된 것은 잘 알려진 것처럼 미국의 매튜 페리(Matthew Calbraith Perry) 제독이 미국 대통령의 명을 받아 포함외교로 1854년 일본 천황과 맺은 미일화친조약(The Kanagawa Treaty, 가나가와 조약)의 결과이다. 가나가와 조약으로 일본이 시모다와 하코다테를 개항하게 된 불평등 조약이었지만 당시 막부에게는 그나마 다행스런 것이었고, 페리로서는 무역 조항이 없었지만 앞으로의 발전을 위한 기초를 쌓은 셈이 되었다.²⁶⁾ 만약 중국과 영국 사이의 난징 조약 정도의 불평등 조약이었다면 일본의 장래가 어떻게 되었을까가 비교되는 사건이다. 이 단순한 사건이 일본의 근대화와 제국주의의 동인을 완벽히 설명하는 이유가 되지는 못하지만,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 일본의 제국주의 역사가 시작되는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하는, 미국이 애초에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되었다. 그리고 일본이 제국주의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때로는 외부적 강압이, 때로는 일본의 자발적인 외부적 요인의 흡수로

26) W. G. Beasley, *The Modern History of Japan*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63), pp. 60-61.

인해 일본 제국주의는 마치 봄날 물을 양껏 흡수해서 커나가는 화초처럼 커져나갔다.

둘째는 내부 요인이다. 일본 역사에서 1603년 에도 막부 시대를 열면서 첫 쇼군이 된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래 일본의 막부 정치는 때로는 일본 국민들에게 풍요로운 삶을 준 시기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기간 일본의 대다수 민중은 극심한 기아와 빈곤 속에서 살았다. 지배계급인 사무라이 계급은 대다수의 민중 위에 군림하였지만 막부 말기가 되면서 막부정치가 재정난이 심각해지면서 위기를 맞게 된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덴포개혁’²⁷⁾으로 불리는 번정개혁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것은 각 번의 재무, 행정의 재건을 통한 정치적·경제적 개혁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은 일부 번에서만 성공하였는데 그러한 번이 바로 막부 말기 막부에 저항하고 메이지 유신을 이끄는 데 주력이 된 사쓰마번(薩摩藩)과 조슈번(長州藩) 등이다. 이 개혁과정에서 막부와 번들의 대립이 있었고, 특히 막부 말기에 중국에서 일어난 아편전쟁에 영향을 받았다. 더욱이 굴욕적인 개항과 미국 및 서방국가들과의 불평등한 조약 등으로 막부 통치는 그 정통성에 큰 타격을 받았다. 일본 내부는 막부를 타도하지는 세력과 지키지는 세력 간의 갈등이 극심해졌다. 이러한 가운데 1866년 막부 타도세력의 중심인 사쓰마번과 조슈번 사이의 삿초동맹(薩長同盟)이 맺어지면서 막부를 타도하고 일본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체제로 돌아가자는 존왕양이(尊王攘夷) 세력이 크게 힘을 받았다. 이러한 반막부세력을 타도하기 위해 막부는 제2차 조슈 정벌에 나섰으나 실패하고 결국 막부의 마지막 통치자인 도쿠가와 요시노부(徳川慶喜)는 1867년에 메이지 천황에게 통치권을 반환하여 일본의 300여 년에 걸친 막부통치가 막을 내린다.

셋째, 메이지 유신은 정치혁명, 산업혁명, 문화혁명이었다. 이러한 정치, 경제, 사회체제의 일대의 개혁을 통해 일본의 근대화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27) 덴포개혁(天保改革)은 에도 시대의 덴포 연간(1830~1843)에 행해진 막부정치와 여러 번(藩)의 번정개혁(藩政改革)의 총칭이다. 이는 에도 시대 3대 개혁의 하나로 막부의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행해졌다. 당시 재정난의 이유로는 막부제도의 지탱의 요체가 된 ‘산킨코타이(參勤交代: 번의 다이묘들이 1년을 주기로 에도와 자신의 영지를 오가는 제도)’와 막부의 어전 건립을 위한 막대한 비용부담과 화폐경제의 확산으로 쌀 수입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 번들이 이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재정난이 심각해지고, 거기다 거듭되는 자연재해와 기근 등이다. https://ko.wikipedia.org/wiki/덴포의_개혁; https://ko.wikipedia.org/wiki/번정_개혁.

과정이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는가가 매우 중요하다. 1789년과 1794년 사이 일어난 프랑스 혁명이 구체제를 타파하기 위해 자본가 계급과 농민이 합세해서 일으킨 ‘밑으로부터의 혁명’이었다면 일본의 메이지 유신은 일종의 ‘위로부터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봉건체제를 무너뜨리고 천황을 중심으로 한 확고한 중앙집권체제로의 전환에 있어서 봉건체제의 축을 이뤘던 번과 사무라이들이 일으킨 혁명이었기 때문이다. 그 혁명의 대의는 존왕양이, 즉 막부를 타도하고 천황을 중심으로 외세를 막아내자는 것이었다. 이러한 사상의 정신적 지도자가 바로 요시다 쇼인(吉田松陰)이며 메이지 유신은 요시다 쇼인의 제자들이 중심세력이 되어 일으키고, 혁명을 완결하였다. 가장 대표적인 제자 중의 한 사람이 바로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이다. 요시다 쇼인은 존왕양이를 부르짖음과 동시에 정한론(征韓論)을 주창하였고 메이지 유신을 성공시킨 소위 ‘유신삼걸’²⁸⁾도 초기부터 추진하였기 때문에 메이지 유신은 태동부터 제국주의적 성격을 띠었다고 할 수 있다.

메이지 유신 주도 세력들이 내세운 것이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집권체제의 확립과 부국강병이었다. 이것을 위해 서구 제도의 성공적 도입이 결정적이었다. 메이지 유신 이후 집권 세력의 핵심부가 이와쿠라 도모미(岩倉 具視)를 단장으로 한 소위 ‘이와쿠라 사절단(岩倉使節團)’을 파견하였다. 이 파견단의 지도부에는 유신을 주도한 기도 다카요시(木戶孝允), 야마구치 마사카(山口 尚芳), 이와쿠라 도모이, 이토 히로부미, 오쿠보 도시미치(大久保利通) 등이 있었고 파견단 규모도 사절단 46명을 비롯해서 수행원, 유학생 포함 100여 명이 넘는 대규모였다. 이들은 1년 10개월의 기간 동안 미국 8개월을 비롯하여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의 각국을 3~4개월에서 짧게는 2주 정도 머물렀다. 이들 나라들과 불평등 조약을 개정 시도하고, 특히 이들 국가들의 근대화 경험을 직접 체험하고 배워왔다. 이들은 당시 서구의 발전상에 깊은 충격을 받고 일본도 그러한 것을 해야 된다고 굳게 믿었고 귀국 후 각 분야에서 이를 실천해 나갔다. 이들이 메이지 유신의 주역이었기 때문에 정치, 경제, 문화, 과학기술, 사회, 교육 등 전 분야에 걸쳐 일본의 근대화를 위로부터의 혁명으로 실천할 수 있었다. 이러

28) 메이지 유신을 이끌었던 3인의 주역을 일컫는 것으로 사쓰마 번의 사이고 다카모리(西郷隆盛), 오쿠보 도시미치(大久保利通), 그리고 조슈번의 기도 다카요시(木戶孝允)이 그들이다.

한 혁명의 절정은 1898년 일본제국헌법의 제정과 1890년 의회 개설이었다. 이로써 천황지배체제는 그 큰 틀이 완성되었다.

넷째, 메이지 유신은 내치 개혁뿐만 아니라 강병을 통한 군사력 건설이었다. 일본은 이것도 서양의 모델을 그대로 가져왔다. 육군은 초기에는 프랑스 모델을 따랐다가 1880년대 중반에는 독일식 모델로 선회하여 독일식 육군을 양성하였다. 일본 해군은 철저히 영국식 모델을 따랐다. 영국의 군사고문단이 일본에 건너와 일본 해군을 양성하였고, 일본도 영국에 해군을 파견하여 교육받았다. 특히 일본 해군이 청일전쟁 당시 보유한 함대는 영국과 프랑스에서 제작된 군함을 주력 함대로 하였다. 또한 일본 자체적으로도 대형 순양함을 2척 건조하였는데 배수량이 무려 4,278톤, 주포로 구경 32cm의 단장포가 설치된 대형함이었다. 중국은 리홍장(李鴻章)이 이끄는 북양함대가 주력이었고, 군함 22척을 보유하고 중국이 자랑하던 정원, 진원의 두 척의 갑철거함이 있었으나 일본은 속력과 속사에 우수한 군함으로 중국의 북양함대를 격파하였다. 일본은 청일전쟁 이후 일본의 군사력의 실재를 경험하면서 그 이후 빠르게 군사력 강화에 나섰다. 1897년에 야하다(八幡) 제철소를 수립하는 등 군사력 건설에 박차를 가하며 동아시아 최대의 군사력을 갖춘 나라가 되었다.²⁹⁾

2. 일본 제국주의의 성장과 쇠퇴

일본의 제국주의는 4단계를 거치면서 성장하고, 중국에는 쇠퇴했다. 첫 단계가 메이지 유신으로부터 청일전쟁까지의 시기이다. 이 시기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제국주의의 기반을 닦은 시기라 할 수 있다. 이 시기에도 정한론을 둘러싼 내부의 치열한 논쟁이 있었으므로 제국주의 싹이 자라던 시기이다. 둘째는 청일전쟁을 시발로 해서 본격적으로 제국주의가 발화하는 시점이다. 러일전쟁, 그리고 을사늑약을 통한 한반도의 강점까지에 이르는 시기이다. 이 시기 일본의 제국주의는 본격적으로 그 본 모습을 드러냈다. 셋째는 다이쇼(대정) 시대의 대부분과 쇼와 초기까지의 시대이다. 이 시기 일본의 제국주의는 군국주의까지로

29) 후지와라 아키라 저, 엄수현 역(1994).

발전한다. 그리고 중일전쟁을 통해 일본의 군국주의는 정점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한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진주만에 공격을 가해 시작된 태평양전쟁으로부터 1945년 8월 15일 종전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군국주의가 극에 달했다가 패망하는 시기이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은 한반도에서의 주도권을 놓고 일본, 중국, 러시아가 격돌한 사건이며 이러한 전쟁을 통해 일본이 청과 러시아에 승리함으로써 한반도를 강점하게 된다. 청일전쟁의 승리로 일본은 1895년 시모노세키조약(下關條約, 하관조약)으로 청국으로부터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포기시키고, 중국의 여러 지역을 개항시키고, 타이완을 할양받는다. 러일전쟁은 13세기 몽골의 유럽침략 이래 유럽 세력이 아시아 세력에게 패배한 최초의 전쟁이 되었다. 따라서 이것은 비단 러시아에게만 경종을 울린 것이 아니라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등 다른 서구 세력에게 큰 경종을 울렸다.³⁰⁾ 아시아 국가로는 처음으로 일본이 서구제국들에 의해서 세계 문제에서 중요한 요소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³¹⁾ 러일전쟁의 결과는 포츠머스조약(Treaty of Portsmouth, 러일강화조약)으로 나타났다. 이 조약으로 러시아는 만주와 조선에서 철수하고 사할린 남부를 일본에 할양해야 했다. 이로써 일본은 청일전쟁을 통해 당시 조선에서 청국을 때어내고, 1902년 영일동맹을 통해 영국으로부터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받고, 포츠머스 회담 바로 직전에 미국과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통해 일본의 조선 지배를 확립하는 것을 인정받음으로써, 조선에 이해관계가 있는 세계의 모든 열강으로부터 조선 지배를 인정받게 된 것이다. 마침내 포츠머스조약 2개월여 뒤 1905년 11월 일본은 을사늑약을 통해 조선에 대한 실질적 지배를, 1910년 한일강제병합을 통해 조선에 대한 완전한 지배를 강화하게 되었다. 일본제국주의가 한국에 대한 억압과 약탈을 위한 완전한 기반을 만들어 낸 것이다.

일본은 조선 지배를 확립하면서 제국주의의 기반을 다진 일본은 대정 시대에서 내적으로 자본주의의 발달, 경제의 부흥, 시민들의 정치적 자유 요구의 확대로 소위 대정민주주의 시대로 일컬어지는 시대를 맞는다. 이러한 시대에서도 일본의 제국주의는 주변 정세에 영향을 받고 자라는데 1911년 중국에서는 신해

30) Connaughton (2003), p. 11.

31) Cameron, Mahoney and McReynolds (1952), p. 277.

혁명을 계기로 청나라가 멸망하고 중화민국이 세워지고,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일본은 영일동맹에 의거 독일에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에 참여한다. 특히 1929년 미국의 대공황 여파가 전 세계로 퍼져 나가면서 일본도 이에 대한 극심한 영향으로 경제가 침체하고, 따라서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식어갔다. 일본 군부는 이러한 혼란기에 마침내 내부적으로 혼란한 중국에 대한 야욕을 드러내 1931년 만주사변을 통해 만주국을 건설하고 군국주의의 정점으로 치달기 시작한다. 그리고 1936년 2월 쿠데타를 통해 군국주의, 파시즘으로 내닫기 시작한다. 중일전쟁은 이러한 결과로서 나타난 것이다.

일본 제국주의의 하이라이트는 1941년 12월에 일으킨 일본의 미국 하와이 진주만 기습공격으로 시작된 태평양전쟁이었다. 이로써 일본은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미국에 대해서도 선전포고를 하였다. 일본은 그 이후 남태평양 일대, 중국 대륙의 상당 부분을 점령해 가면서 전선을 넓혔고, 이에 맞서 미국도 당시의 축적된 막강한 군사 잠재력으로 시간을 벌면서 군비확장에 힘써 마침내 1944년에는 전쟁에의 승기를 완전히 잡았다. 반면에 일본은 오랫동안 전쟁에서 이미 많은 체력을 소진하였고, 아시아 거의 전역에서 전선을 형성함으로써 또 그들 나라들의 저항에 직면하였고, 더욱이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갖춘 미국에게 결국 핵폭탄을 투하 당함으로써 백기를 들게 되었다.

일본 제국주의 역사는 군국주의와 파시즘으로 점철되었다. 대정 시대에 잠깐 그 기세가 수그러들기는 했으나 시기 전반에 걸쳐 제국주의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그로 인해 동아시아는 전쟁과 수탈로 점철된 역사를 기록하였다. 헤게모니의 두 의미, 즉 동의에 의한 리더십과 강압에 의한 리더십이 결합된 의미에서 제국은 당연히 강압에 의한 리더십이 그 주된 속성이 된다. 일본 제국주의의 특징은 길핀이 말한 바와 같이 헤게모니의 순환이 기존의 헤게모니의 약화와 부상하는 헤게모니 사이의 전쟁으로 일어났다. 즉, 동아시아에서 당시 패권을 오랫동안 누리왔던 중국을 대체하는 새로운 헤게모니의 등장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러한 헤게모니가 완전히 대체되기도 전에 일본은 헤게모니전쟁 중에 또 다른 부상하는 헤게모니인 미국을 공격함으로써 결국 미국에 의해 제압당하는 결과를 낳았다. 헤게모니 전쟁이론이 왜 그 당시 동아시아에서 헤게모니를 권 일본에 대해서 부상하는 미국이 공격하지 않고 일본이 미국을 공격했는가에 대해 좀 더 정교한 해답을 내려야 하는 또 다른 숙제를 안겨주는 대목이다.³²⁾

일본의 제국주의는 메이지 유신을 통해 일본이 근대화를 이루면서 싹이 자라고 내부적으로는 정한론을 키우면서 결국 청일전쟁을 시작으로 해서 발화하기 시작했다. 1894년부터 1945년 사이 약 50여 년에 걸친 제국의 흥망성쇠는 중국의 제국주의에 비해서는 그 기간이 극히 짧았으나 그 제국주의가 남긴 세계사의 상흔은 너무도 깊고 컸다. 한국을 비롯해서 많은 아시아인들이 그 제국주의에 희생이 되었으며 아시아의 대부분의 국가가 전쟁에 휩싸이고 엄청난 수의 인구가 희생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과 맞물려 세계가 제국주의의 희생물이 된 시기이기도 하다. 제국주의는 헤게모니 전쟁이론처럼 강대국끼리의 관계를 생각해 주는 기제가 되기도 하지만 그 사이에 희생된 약소국에 대해서도 함의가 작지 않는 주제이다. 어떤 제국주의도 좋은 제국주의는 없지만, 그중에서도 일본의 제국주의는 역사상 가장 나쁜 제국주의의 선례를 남겼다는 데서 오늘날 이를 회고하는 의미가 있다 하겠다.

V. 미국의 헤게모니 시대의 흥망성쇠

미국의 제2차 세계대전 승리는 미국 시대의 진정한 개막을 알리는 이정표이다. 미국이 19세기 말부터 새로 부상하는 세력으로서 커운 지 반세기여 만에 드디어 국제적 수준에서의 강대국으로 발돋움한 사건이었다 할 수 있다. 미국이 제1차 세계대전에서의 승전도 그러한 기회를 가져다 준 사건이었다. 하지만 곧 이어 대공황이 닥쳤고, 또 당시는 유럽 국가들의 제국주의적 힘과 야망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미국이 세계 문제에 주도국으로 나설 기반이 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 유럽과

32) 듀런트는 1834년경 자신의 저서에서 그 당시 동아시아의 상황을 보면서 미국이 동아시아의 시장을 장악한 일본에 대해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은 일본과 싸워야 하는가? …… 1853년 미국이 깨운 일본이 …… 아시아 시장을 저가 공세로 점령하고 정복과 외교력으로 지배하려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두 국가가 하나의 시장을 놓고 다투다가 경제전에서 패한 국가가 자원과 군사력에서 우세하면 상대에게 전쟁을 거는 것이 역사의 상례였다.” 월 듀런트(2011), p. 684.

아시아에서 공히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미국에 대적할 만한 전통적인 유럽 및 아시아 세력이 남아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명실공히 강대국으로 부상하였다. 미국은 전쟁 이후 전통적인 우호세력 영국과 중화민국 그리고 소련과 함께 국제 체제를 평화체제로 건설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소련은 미국이 생각했던 유럽의 세력균형에서 항상 방어적이었던 전통적인 러시아 세력이 아니었고, 중국은 마오쩌둥이 이끄는 공산당이 본토를 장악함으로써 전후 질서는 불과 몇 년 사이 전전(戰前) 미국이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체제가 되었다. 주지하다시피 미·소가 대결하는 냉전체제로 급격히 변화하게 된다.

종전 이후 미국의 헤게모니 시대는 다음과 같이 네 시기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는, 1945년 이후 냉전 종식까지 미국의 헤게모니가 반쪽 헤게모니인 시대이다. 둘째는, 냉전 종식 이후 대략 2007년까지 진정한 미국의 헤게모니 시대이다. 셋째는, 2007년 이후 오바마 행정부가 끝나기까지, 또한 반대로 중국이 부상하는 시기이다. 마지막으로,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현재와 미래의 시기이다. 이 시기에 미국의 헤게모니는 성장과 변화를 겪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 냉전체제와 미국의 반쪽 헤게모니 시대

종전 이후 몇 년은 미국은 전후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1947년에야 트루먼 독트린을 계기로 대소 봉쇄정책에 나서면서 미국과 소련은 긴 냉전 기간을 통해 대립하는 양극체제를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양극체제는 전 세계적으로는 세력을 양분하는 시대였지만 서방세계와 공산진영 각각에서는 미국과 소련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반쪽의 헤게모니 국가가 존재했다. 특히 미국은 자본주의체제하에서 글로벌 자본주의의 맹주로서 그 지탱에 필요한 제도들을 만들고 이를 지탱해나갔다.³³⁾ 또한 소련으로부터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세계 각 지역에 다양한 다자동맹, 양자동맹을 결성하여 자유진영의 결

33) Jeffrey A. Frieden, *Global Capitalism: Its Fall and Rise in the Twentieth Century*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Ltd., 2006).

속을 다졌다. 결과적으로 미국 헤게모니의 두 축인 안보적·경제적 제도화가 이때 만들어진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글로벌 자본주의의 두 축인 국제금융체제와 국제무역체제가 만들어지고 또 안보동맹으로서 유럽에서 나토(NATO), 동아시아에서 한미동맹 및 미일동맹이 결성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헤게모니 안정이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미국은 충실하게 자유진영의 안정화를 위해 공공재를 제공하는 역할을 다했다.

탈냉전이 헤게모니전쟁 없이 일어난 것에 대해 국제정치학계는 치열한 이론적 논쟁을 해왔다.³⁴⁾ 즉, 냉전체제를 가장 잘 설명했다는 구조적 현실주의 이론에 대한 비판과 논쟁이다.³⁵⁾ 또한 현실세계에서는 당시 탈냉전을 이끈 조지 H. 부시 행정부는 탈냉전 이후의 미국의 역할에 대해 오히려 헤게모니 강화가 아니라 국제 경찰로서의 미국의 역할을 줄이는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이를 이어받은 클린턴 행정부는 국방비를 줄이면서 미국의 안보 역할을 축소시키려고 노력했다. 이러한 것은 미국의 냉전 피로감을 반영한 것이다. 오랫동안 소련과의 냉전을 치르면서 미국의 국방비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났고 미국 경제의 부담은 커져갔다. 그리고 당시 경제적으로 미국의 경제에 경쟁자인 일본과 독일의 건실한 성장과 추적이 미국의 우려를 증가시킨 것도 큰 원인 중의 하나였다.

그러나 폴 케네디 등의 미국 헤게모니 약화론자들의 주장과는³⁶⁾ 달리 탈냉전 이후 미국의 상대적인 힘은 더욱 강해졌다. 일본은 90년대 초 더욱 부강할 것으로 전망되었던 것과는 달리 ‘잃어버린 10년(실제로는 근 30년)’을 경험하면서 퇴조해갔다. 일본과 더불어 일부 학자들에 의해 탈냉전 시기 부강하는 강대국의 후보였던 독일은 독일통일의 여파로 국내 문제에 매달려야 했다. 소련은 거의 10년 동안 제3세계 국가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중국은 아직 부상하기

34) 헤게모니 전쟁론을 제기한 Gilpin에 대한 비판이다. Robert Gilpin, *War and Change in World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1).

35) 대표적으로 구조적 현실주의를 이끈 Kenneth Waltz에 대한 비판이다. Kenneth Waltz, “Structural Realism after the Cold War,” in John Ikenberry (ed.), *America Unrivaled: The Future of the Balance of Power*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2002).

36) Paul Kennedy, *The Rise and Fall of Great Powers: Economic Change and Military Conflict from 1500 to 2000* (New York: Random House, 1987); David P. Calleo, *Beyond American Hegemony* (New York: Basic Books, 1987).

이전이였다. 상대적으로 미국의 완벽한 헤게모니 시대가 출현한 것이다. 1990년대 클린턴 행정부 시기는 세계적인 안보 이슈가 부재하였다. 소말리아 사태나 코소보 사태 등이 일어났고 미국이 이에 대항해야 했으나 이것은 탈냉전의 여진과 같은 것이었다.³⁷⁾ 미국이 20세기에 가장 안보적으로 덜 위협받는 10년이라 할 수 있다. 클린턴 행정부 시기에 미국의 경제는 점진적으로 나아졌고, 국방비는 초기에 소폭 삭감되었으나 말기에는 다시 현실적으로 돌아왔다.³⁸⁾

미국의 헤게모니가 위협받기 시작한 것은 강대국이 아니라 아이러니컬하게도 테러리즘으로부터였다.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출범하고 오사마 빈 라덴이 주도한 테러인 9.11 사태가 바로 그것이다. 이것을 계기로 미국은 2000년대 초반 아프가니스탄전쟁과 이라크전쟁을 수행하면서 극도의 개입주의로 선회하였다. 그러나 사실상 미국의 헤게모니에 경종을 울린 것은 오히려 미국 경제였다. 부시 행정부 말기 일어난 2007~2008년의 미국 경제 위기는 20세기 초반의 미국의 경제대공황 정도는 아니었으나 세계 경제에 엄청난 충격과 여파를 안겨주었다. 무엇보다도 세계 최강의 미국 경제가 일으킨 경제 위기라는 점에서 1997년 일어난 아시아 경제 위기와의 또 다른 함의를 가지고 있다 하겠다. 이것의 가장 큰 의미는 미국 헤게모니의 실질적인 퇴조이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가 저렇게 경제 위기에 직면할 수 있겠구나 하는 미국의 취약점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이러한 경제 위기의 유산을 물려받고 대통령 자리에 올랐다. 이미 미국의 헤게모니가 심각하게 도전받는 상황이 된 것이다. 오바마의 8년은 한편으로는 이라크전쟁의 여파를 수습하고, 경제 위기를 극복해나가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커가는 중국을 실감하기 시작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중국의 시진핑 체제의 출범은 중국이 헤게모니로의 부상과 그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했다는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은 2013년 첫 미국 방문에서 미국과의 신형대국관계를 공개적으로 선언하였다. 중국이 그간의 '뭍 낮추기 전략'³⁹⁾에서 본격적으로 국제정치에서 제 목소리를 내겠다는 선언과 다름이

37) 빌 클린턴 저, 정영목·이순희 옮김, 『빌 클린턴의 마이 라이프』(풀무레, 2004).

38) 1992년 3,028억 달러, 1993년 2,976억 달러, 1996년 2,714억 달러, 1999년 2,809억 달러, 2000년 3,016억 달러. <https://www.sipri.org/sites/default/files/Milex-local-currency.pdf>.

39) 중국은 주지하다시피 개방 이후 덩샤오핑, 장쩌민, 후진타오 체제를 거쳐 오면서 도광양희, 화평

없는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전략 변화는 중국 경제의 급성장과 맞물려 있다. 중국의 경제 성장 추이를 보면 2003년부터 2010년까지 무려 10%를 상회하는 경제성장률을 보였다.⁴⁰⁾ 중국의 당시 새로 출범한 시진핑 체제는 이러한 중국 파워의 성장이라는 내적 요인과 미국의 경제 위기를 목도하면서 미국 시대가 저무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보다 적극적인 대국지향의 전략으로 선회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전략 변화가 너무 일찍 시작되었는지 또는 적절한 타이밍이었던지는 향후 역사가 증명할 것이다. 너무 일찍 시작되어서 미국의 경각심을 자극하였고 따라서 중국이 미국과 대등한 대국으로 커나가는 데 지장이 되었을 수도 있고, 반면에 미국의 파워가 퇴조하고 중국의 파워가 상승하면서 결국 향후 국제질서가 단기간에 중국 헤게모니로 전환되지는 않더라도 미·중 양극체제 정도라도 간다면 중국의 행보는 적절했고 성공한 것이다.

2. 미국의 헤게모니 미래

미국의 일극체제론자들의 주장은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고 객관적인 수치를 가지고 이를 증명하고 있다.⁴¹⁾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과연 미국은 향후에도 이러한 일극체제를 지속할 수 있느냐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그것은 바로 트럼프 행정부의 고립주의적 외교 정책 때문이다. 트럼프의 미국 시대에 있어서 미국의 헤게모니에 대한 질문은 세 가지이다. 첫째, 신고립주의로 전환을 선언한 트럼프 시대 미국의 헤게모니는 퇴조할 것인가? 둘째, 중국은 확실히 부상할 것인가? 셋째, 그 교체에 헤게모니전쟁은 불가피할 것인가? 이 세 가지 질문들은 물론 모두 가정적 질문들이다.

발전 등의 대외전략을 통해 최대한 몸을 낮추는 전략으로 일관해왔다.

40) The World Bank, GDP Growth (annual %),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NY.GDP.MKTP.KD.ZG?end=2016&locations=CN&name_desc=false&start=2000&view=chart.

41) 브룩스와 윌포스는 중국이 군사력, 경제력, 기술력에서 미국에 현저하게 뒤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Stephen G. Brooks and William C. Wohlforth, "The Rise and Fall of the Great Powers in the Twenty-first Century," *International Security*, Vol. 40, No. 3 (Winter 2015/16), pp. 7-53.

트럼프 시대 미국의 헤게모니는 미국에 달려 있다. 트럼프가 선거에서 주장한 것처럼 그러한 고립주의면 미국은 반드시 쇠퇴한다. 미국의 헤게모니 시대가 미국 파워의 약화와 중국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는 것은 미국이 만들어 놓은 독특한 세계 질서에 기인한다. 즉, 가장 강력한 자본주의를 미국이 만들어 놓았다. 그 기둥이 바로 미국적 제도, 즉 국제무역체제와 국제금융체제가 그것이다. 이것이 글로벌 자본주의의 기둥이다. 군사적으로는 동맹이다. 미국의 고립주의는 이 체제를 흔들고 동맹을 와해시킬 것이다. 미국이 그러한 고립주의로 인해서 내적으로 다소 강해지더라도 미국의 헤게모니 체제는 허물어질 것이다. 국제주의에 의하지 않은 헤게모니 체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 혼자서 스스로 강해진다 한들 국제 문제에 주도적 역할을 하지 못하는 국가로 남을 때 나머지 국가들이 미국의 리더십을 따르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헤게모니의 두 가지 의미 중 동의에 의한 리더십조차도 생겨날 수가 없다.

미국이 1945년 이래 미국 스스로가 많은 노력, 희생, 그리고 대가를 치르면서 만들어 놓은 체제를 스스로 허무는 것이다. 미국이 자신의 헤게모니를 감췄던 외교를 스스로 벗기는 어리석은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국제체제는 매우 불안한 세력균형체제로 돌아갈 것이다.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세력들이 과거 19세기, 20세기 초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국제정치에서 세력투쟁이 더욱 심해질 것이다. 미국이 잃어버린 신뢰는 다시 강국이 되었다 한들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 사이 국제정치의 불안정성에 불안을 느끼는 국가들은 세력균형에서 합종연횡하는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올 것이다. 특히 새로 부상하는 헤게모니 국가에게 편승하는 국가들이 늘어날 것이고 그 결과 미국의 헤게모니 체제는 허물어지고 비헤게모니 체제가 등장할 것이다. 이것이 다소간의 조정기간을 거쳐서 새로운 양극체제나 다극체제로 전환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10여 개월 지난 시점에서 판단해보면 출범 당시 부르짖었던 것과 실제 외교정책상에서 행사하는 것은 다소 차이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외교정책을 매우 전통적인 것에 가깝게 보는 경향도 있다.⁴²⁾ 실제로 트럼프는 일부 문제에 있어서는 그전 정부보다 더 개입

42) Elliot Abrams, "Trump the Traditionalist: A Surprisingly Standard Foreign Policy," *Foreign Affairs*, July/August 2017.

주의적 성향을 보인다. 예를 들어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 이전의 어떤 정부보다도 개입주의적 성향이 강하다. 다만 현재로서 예상할 수 있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완전한 고립주의로의 전환은 하지 않을 것이 분명해 보인다. 그것보다는 경제 분야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며 정책 선회는 하되 세계 문제, 특히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지난 오바마 정부보다 더 심한 개입주의 성향을 나타내는 복합적 성격을 띤 정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의 국제체제는 이러한 트럼프 정부의 성향이 확실히 나타나고, 또한 부상하는 세력인 중국의 행보가 확실해지면 더 구체적으로 부각될 것이다.

VI. 부상하는 중국의 헤게모니

중국의 시진핑 체제가 출범하면서 줄곧 부르짖어온 소위 ‘중국몽’의 이면을 보면 과거 중국 역사에 있어 찬란했던 시절을 그리고 꿈꾸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21세기 자유주의 국가로서 새로운 기술 혁신에 의한 문명의 발전을 통해 인류 역사에 기여하는 ‘문명적 헤게모니’가 아닌 다시 지배적/피지배적 관계에 바탕을 둔 제국주의적 헤게모니 국가라면 그것은 미래의 국제체제가 다시 암울한 힘의 대결 관계에 바탕을 둔 체제가 지속됨을 의미한다. 시진핑 시대가 출범하면서 신형대국관계, 일대일로 정책을 통한 대륙 실크로드, 해상 실크로드 건설 등의 정책 추진을 보면서 ‘중국몽’이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것인지 짐작이 가지만, 그것이 과거 중국 제국이 가장 찬란했던 대륙 세력으로서의 몽골제국과 해상에서의 정화 원정을 떠올린다면 그것은 필자만의 생각을 아닐 것이다.

1. 중국 헤게모니의 문제: 정치체제와 경제력

현재 중국 헤게모니의 문제는 정치, 경제, 군사, 과학기술, 사회에 걸쳐서 다방면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첫째, 중국은 현대 중국의 출범 이후 강력한 중앙집

권체제를 구축해왔다. 덩샤오핑 이후 이러한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는 특히 집단 지도체제라는 매우 특이한 형태의 중앙집권체제이다. 그러나 이러한 집단지도 체제는 시진핑 정부 출범 이후 흔들리는 조짐을 보여 왔다. 중앙집권체제의 약화가 아니라 집단지도체제를 시진핑 1인체제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왔기 때문이다. 2017년 10월 중순에 시작된 중국의 제19차 당 대회가 결말이 나면서 시진핑 시대에는 지도자의 권력이 단순히 집단지도체제에서의 $1/n$ 이상의 1인 집중권력 현상이 나오고 있는 것만은 확실하다. 제19차 당 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은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체제’의 고수를 선언하였다. 문제는 이러한 중국식 사회주의 체제의 ‘건강성’이다. 어떤 체제가 안정적인 수는 있어도 건강하지 않는 체제가 있고, 다소 불안정하지만 건강한 체제가 있을 수 있다. 강압적 수단에 의해 통치되는 체제는 안정적이지만 건강하지 않고, 민주주의로 이행되는 체제는 다소 불안정하지만 건강한 체제일 것이다. 대부분의 선진 서구 민주주의 사회는 안정적이며 건강한 사회이다. 중국이 ‘중국식’ 사회주의 체제를 부르짖는 것은 다분히 소련 및 동구 유럽의 사회주의 체제의 몰락과 현존하는 기타 사회주의 체제의 취약성을 의식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사회주의가 아니고 중국식 사회주의는 다르고 따라서 지속가능하고 더욱이 강력한 헤게모니 체제의 바탕이 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여기에는 ‘중국은 다르다’라는 의식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중국식’으로 표현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러한 중국식 사회주의 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중국 공안의 엄격한 감시와 통제를 바탕으로 중국 인민의 개인 인권과 사생활을 제한하는 권위주의 통치에 계속 의존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체제가 어디까지 건강하게 지속될 수 있는지는 현대 국제사회의 최대의 실험이 아닐까 생각된다.

둘째는 경제 문제이다. 중국은 현재까지는 글로벌 자본주의에 성공적으로 편입되어 왔다. 중국 경제가 이러한 자본주의의 최대의 수혜자이다. 중국은 거대한 인구를 기반으로 초기 노동 집약적 산업을 바탕으로 국가 주도의 수출 지향적 경제 전략에 의존하여 성공하였다. 초기에는 한국을 비롯한 몇몇의 신흥공업 국가들의 전략을 그대로 답습하였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 기술 집약적 산업 들에도 경제적 집중을 보이면서 2003년부터 연 10%를 넘는 경제성장을 계속하여 특히 2007년에는 연 14.2%라는 초고속성장을 달성하였다.⁴³⁾ 따라서 한때 10%가 넘는 성장을 계속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중국의 경제성장이 계속되어진

다면 2030년에 가면 중국 경제가 미국을 넘어서 세계 최대의 경제국가가 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까지 나오게 된 것이다.⁴⁴⁾ 그러나 중국의 그러한 높은 경제성장률은 지속되기가 어려운 것이다. 이미 2015년에는 6%대의 경제성장률로 내려왔고 이마저도 앞으로 지속되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이미 세계 주요 경제 전망 기관들에서는 6%대의 경제성장도 앞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중국이 최고의 경제성장 시기에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단 시일 내에 미국을 경제적으로 따라잡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자본주의의 성장에 대해서 학계에서도 많은 논쟁이 있어왔다. 과연 ‘중국 특색의 자본주의(capitalis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또는 ‘권위주의적 자본주의(authoritarian capitalism)’가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찬반이 치열하다.⁴⁵⁾ 지금까지는 중국의 사회주의적 시장경제, 또는 중국식 자본주의가 중국의 정치체제와 원만하게라도 다원화하면서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시진핑 시대에는 오히려 정치체제를 더욱 일인 집종의 권위주의 체제로 과거 회기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정치 환경에서 향후 중국의 자본주의 체제가 어떻게 적응하고 발전할지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미시적으로 보면 중국 경제의 미래는 얼마나 세계 최선도(最先導) 산업을 중국이 보유할 것이냐에 달려 있다. 지금까지 중국의 산업은 상당 부분 카피 산업이다. 중국 고유의 주도산업은 현재까지는 거의 단 한 개도 없는 실정이다. 더구나 많은 산업기술을 미국과 유럽 선진국으로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가져오고 있고, 일부는 훔치기도 해서 미국과 문제가 되기도 했다.⁴⁶⁾ 조선, 자동차, 반도체

43) 세계은행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2000년(8.49%), 2001(8.34%), 2002(9.13%), 2003(10.03%), 2004(10.11%), 2005(11.39%), 2006(12.71%), 2007(14.23%), 2008(9.65%), 2009(9.40%), 2010(10.63%), 2011(9.53%), 2012(7.85%), 2013(7.75%), 2014(7.29%), 2015(6.9%), 2016(6.7%)이다. The World Bank, GDP Growth (annual %),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NY.GDP.MKTP.KD.ZG?end=2016&locations=CN&name_desc=false&start=2000&view=chart.

44) Arvind Subramanian, *Eclipse: Living in the Shadow of China's Economic Dominance* (Massachusetts, NW: PIIE Press, 2011), p. 101.

45) Huang Yasheng, *Capitalis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Stefan Halfer, *The Beijing Consensus: How China's Authoritarian Model Will Dominate the Twenty-First Century* (New York: Basic Books, 2010); and Ronald Coase and Ning Wang, *How China Became Capitalist*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13).

46) KBS, 다큐멘터리: 중국의 산업스파이, 2017년 10월 29일 방영, <http://m.kbs.co.kr/schedule/sche>

체, 전자, 항공 등등 세계 경제를 이끄는 산업들에서 중국이 선전하고 있지만 최고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산업은 없다. 인공지능, 로봇 등의 신산업 부분에서 중국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나 그것의 원천 기술은 중국 것이 아니고 다만 중국은 이러한 산업들에서 거대한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상업화하는 데 지금 앞장서고 있다. 따라서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이들 산업에서 과거 미국이나 일본이 세계를 선도했던 것과는 다소 다르다. 과연 탁월한 기술을 가지고 세계 최선도 산업을 갖지 않는 국가가, 다만 GDP의 양적 성장만을 가지고 세계 최고의 경제국가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중국의 과학기술 능력이 향후의 미·중 간 기술 헤게모니 경쟁의 추이를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될 것이다. 2016년을 기준으로 중국의 특허 신청은 획기적으로 늘어 연 성장률 44.7%를 이루면서 특허 건수가 미국 59,595, 일본 45,239에 이어 43,168로 3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어서 독일이 18,315, 한국이 15,560이다. 성장률로는 미국이 -0.9%, 일본 2.7%, 독일 1.7%, 한국이 6.8%이다. 중국 기업들인 ZTE와 화웨이가 각각 1, 2위를 미국의 켈컴이 3위, 일본의 미쓰비시가 4위, 그리고 한국의 LG전자가 5위를 차지하였다. 특히 ZTE, 화웨이, LG전자, 켈컴, 삼성전자가 모두 정보통신 관련 기술 특허여서 현재 시장의 선도 산업이 무엇인지를 말해준다.⁴⁷⁾ 하지만 다른 기술 영역에서 중국 기업들이 아직 정보통신과 같은 기술적 우위를 보여주는 산업은 없다. 또한 기술적 우위를 나타내주는 지표 중의 하나가 로열티와 라이선스 비용(royalty and license fee)인데 2010년을 기준으로 미국은 1,050억 달러로서 일본의 네 배이고 중국은 10억 달러 미만으로 거의 미미한 수준이다.⁴⁸⁾

dule2_m.html; U.S. House of Representatives, *China's Technological Rise: Challenges to U.S. Innovation and Security*, Hearing, Subcommittee on Asia and The Pacific, Committee on Foreign Affairs, One Hundred Fifteenth Congress, April 26, 2017, p. 2.

47) Patent Cooperation Treaty Yearly Review 2017, <http://www.wipo.int/publications/en/series/index.jsp?id=35>.

48) Brooks and Wohlforth (2015/2016), pp. 24-26.

2. 국제제도와 군사력

더욱이 국제제도의 측면에서 보면 미국과 중국의 차이는 보다 확연히 드러난다. 많은 미국의 일극주의자들이 지적하는 것은 지금의 글로벌 자본주의는 미국 제도이고 이것이 쉽사리 바뀔 리 없다는 것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제경제 제도들은 모두 미국적 제도들이다. 이런 것을 깨달은 중국이 최근에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The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을 만들고 이에 집중하는 것은 미국적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중국이 나름대로 자신이 주도하는 제도를 하나 운용해보고자 하는 시도라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켄베리(Ikenberry)가 지적하듯 미국은 현재의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를 선도하는 국가이고 이러한 국제체제하에서 미국은 계속해서 지배적인 국가로 남을 것이라는 것이다. 중국의 부상은 확실하지만 이러한 중국의 부상이 현존하는 미국적 제도와 규칙을 바탕으로 하는 국제 질서에 대항해서 비서구적·비자유주의적 질서를 만들려 할지는 전적으로 중국에 달려 있다고 본다.

이러한 과정에서 세 가지 점이 고려되어야 하는데 첫째는, 중국이 자본주의 세계 경제의 제도와 규칙들에 저항하느냐,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둘째는,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라는 게 연합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 혼자 주도하는 질서가 아니라 많은 서구국가들이 서로 협력하고 참여하는, 정치, 경제, 안보 분야에서 서로 상생하는 그런 질서이다. 중국이 헤게모니를 원하면 이들 국가들은 연합해서 저항할 것이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과거 헤게모니 전환은 결국 헤게모니전쟁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결국 이것은 핵전쟁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러한 전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⁴⁹⁾ 엘리슨(Allison)은 미국과 중국이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지기 쉬운 상대가 되었고 다가오는 문명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서로의 핵심이익들을 잘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⁵⁰⁾

중국이 세계 최강대국으로 등장하기 위해서는 군사력이 최강이 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중국이 군사 현대화에 힘을 쏟기 시작한 지도 어언 30여

49) G. John Ikenberry, *Liberal Leviathan* (Princeton and Oxford: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1), chapter 7.

50) Graham Allison, “China vs. America,” *Foreign Affairs*, Vol. 96, No. 5 (September/October 2017), pp. 80-89.

년이 넘었다. 지금의 중국의 군사력의 수준은 군사비로서는 세계 2위, 핵능력에서는 미국, 러시아에 이어 세계 3위, 재래식 무력에서는 단순한 비교 평가는 어렵지만 중국이 주장하는 9단선(段線), 즉 남중국해에 개입할 수 있는 정도의 무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⁵¹⁾ 중국은 2016년에 중국군의 조직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기존의 7개의 합동군구에서 5개 전구(戰區)로 나눠 무력을 배치하였다. 이들은 동, 서, 남, 북, 중앙 등의 5개 전구로서 북은 선양, 중앙은 베이징, 동부는 난징, 남부는 광저우, 서부는 란저우에 사령부를 두고 있다. 이러한 전구 개편을 통해 중국은 군사력은 줄이고 통합군구로의 개편을 통해 더욱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작전이 가능한 전력으로 개편한 것이다.⁵²⁾

중국의 군사비는 지난 10년만 보더라도 획기적으로 증가하였다. 2007년 1,036억 달러, 2011년 1,560억 달러, 2016년 2,257억 달러로 거의 두 배가량 증가하였다. 하지만 미국의 군사비에 비하면 아직도 1/3 수준에 불과하다. 미국의 군사비는 2007년 6,366억 달러, 2011년 7,495억 달러, 2016년 6,062억 달러이다.⁵³⁾ 더구나 누적 액수를 보면 중국과 미국의 군사비 차이는 더 벌어진다. 지난 2007년부터 2016년 사이 10년의 양국 누적액의 차이는 54,800여억 달러로서 앞으로도 누적액은 중국의 군사비가 미국에 버금가는 정도가 될 때까지 계속 늘어날 것이다. 결과적으로 중국이 세계 최강대국이 되겠다는 2050년도달될 때까지도 이러한 누적액을 다 따라잡기는 어렵다는 계산이 나온다.

중국의 핵전력도 최근 급격히 증강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을 직접 타격 가능한 ICBM을 이미 다량 보유하고 있다. 중국은 액체연료를 쓰는 사정거리 10,000km 이상의 DF-5, DF-5A, DF-5B와 고체연료를 쓰면서 이동형 발사대에서 사격 가능한 DF-31A, DF-41을 실전배치 해놓고 있다. 중국도 이미 다탄두 미사일(MIRV)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중국의 미사일 능력이 상당한 수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핵 능력의 측면에서 보면 중국은 아직 미국에 필적할 정도는 아니나 상당한 수준의 핵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이 1,538개의 전략핵, 336개의 SLBM을 포함 2,038개의 전략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250개

51) US Department of Defense, *Annual Report to Congress: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7*, May 15 2017.

52) 『연합뉴스』, 2016년 11월 25일.

53) SIPRI Yearbook 2017, <https://www.sipri.org/sites/default/files/Milex-constant-2015-USD.pdf>.

정도의 전략핵을 보유하고 있고 이것은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⁵⁴ 중국의 이러한 군사력 증강, 특히 핵과 미사일 능력은 중국의 다양한 연구 개발 기관들과 수만 명에 이르는 연구 인력들에 힘입고 국가가 강력히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공정물리연구원(中國工程物理研究院: China Academy of Engineering Physics), 중국항공과기집단공사(中國航天科技集團公司: China Aerospace Science and Technology Corporation), 중국운재화전기술연구원(中國運載火箭技術研究院: China Academy of Launch Vehicle Technology) 등에서 중국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거의 전담하고 있다.⁵⁵ 중국은 미국 및 러시아와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두 단계의 전략, 즉 초기에 연구 개발에 주력하고 이를 바탕으로 두 번째 단계인 생산에 주력하는 전략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⁵⁶ 이러한 노력을 통해 중국이 미국 수준에 필적할 만한 군사능력을 갖는다 해도 그것이 곧바로 헤게모니로의 전환이 되지 않는 것이라는 점이다. 다만 중국의 군사력이 증강되면 특히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세력 극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데 이때가 바로 미국과 중국의 충돌 가능성이 가장 클 때이고 미·중이 서로를 테스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헤게모니 경쟁에서 간과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자유주의적 질서를 옹호하고 있는 국가 그룹이 미국 주도의 질서를 받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극도의 고립주의로 전환해서 이러한 미국 주도 질서를 스스로 해치는 일이 없는 한 이 틈을 중국이 비집고 들어오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또한 미국은 지역적 경쟁자가 없다. 중국은 지역 문제에 둘러싸여 있다. 한반도, 대만 해협,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 대만,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와 남아시아에서 인도 등과 경쟁하는 상황이다. 이들 국가들이 반중국적 연합을 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⁵⁷ 미국과 경쟁하기 이전에 이들 국가들과 힘겨루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의 기존 동맹국들이

54)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The Military Balance 2017* (2017), pp. 11-15.

55)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2017).

56)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2017), p. 15.

57) W. 부시 행정부 시절 네오콘에 의해서 제기된 ‘민주주의 동맹(The Alliance of Democracies)’의 아이디어가 바로 그러한 것인데 일본이 현재도 이러한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기려 노력하고 있다. 즉, 미국, 일본, 인도, 호주를 잇는 민주주의 벨트를 만들어 중국을 견제하자는 것이다.

다자적, 양자적 동맹으로 그 자체가 범자유주의적 국제 질서를 이루고 있는 것에 반해 중국은 북한과 일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연합할 수 있는 정도이다. 러시아는 반미국적이지만 그렇다고 중국이 러시아를 넘어 헤게모니 국가로 가는 것을 용인하지는 않을 것이다. 미래에 중국에게는 두 가지 길이 열려 있다. 하나는 강하지만 제국주의적인 중국이고, 다른 하나는 보다 현대적인 민주주의 중국이다.⁵⁸⁾ 현대적인 민주주의 중국이 세계와 중국 자신에게 더 이로운 것인지는 분명해보이지만 중국이 실제로 거기로 향할 것인지는 분명해보이지 않는다.

VII. 한국의 미래에 대한 전략적 함의

한국의 지정학적 숙명은 세계 초강대국들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이다. 세계 강대국들의 대부분인 중국, 일본, 러시아가 바로 한반도와 인접해 있고, 미국은 지리적으로 동아시아 국가가 아니나 지난 20세기 중반 이후 동아시아에 깊이 개입해 왔다. 한국의 이러한 지정학적 숙명은 역사에서, 현재, 그리고 미래에 한국의 국가적 운명에 영향을 미친다. 불행히도 한국의 역사는 동아시아 헤게모니 국가의 희생양으로서의 역사였다. 중국 제국에 의해,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오랫동안 수탈당해왔다. 한국이 그나마 독립된 국가로서 발전을 이룬 것은 역사 이래로 지난 수십 년에 불과하다. 지리적으로 동아시아 국가가 아닌 미국의 헤게모니 시대에서 미국적 가치와 제도를 발전시키고, 글로벌 자본주의 하에 미국과 동맹을 맺은 결과이다.

1. 글로벌 체스판에서 살아남기

동아시아 헤게모니 역사에서 한국이 얻어야 할 교훈은 당연히 과거와 같은 수탈 받는 약소국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중국, 일본, 미국의

58) Ross Terrill, *The New Chinese Empire* (New York: Basic Books, 2003), pp. 340-342.

헤게모니 역사에서 배워야 할 것들이 있다. 무엇보다도 국제사회의 변화에 민감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과 일본의 헤게모니 흥망성쇠가 갈린 것은 바로 외부적 요인에 국가가 어떻게 대응했느냐 하는 것이다. 19세기 중엽 중국과 일본 모두 외부 세계의 실상을 전혀 몰랐다. 유럽과 구미 세력들이 어떤 발전을 이루고 어떠한 사고를 가지고 세계를 대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들이 어떤 정도의 세력인지도 구체적으로 몰랐다. 물론 외부세력 자체가 어떠한가도 중요하다. 중국에게는 식민주의를 추구한 제국주의 세력인 영국이, 일본에게는 적어도 식민주의를 추구하지 않는 미국이 첫 개항을 시도한 국가였기 때문에 여기서 운명이 갈렸다. 거기에서 중국은 제국이 다 쓰러져가고 있었고, 일본은 신흥세력이 구체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려 할 때였다. 따라서 외부적 요인에 대한 체제의 수용성이 완전히 달랐다. 당시 가장 약한 조선도 마찬가지로 세계를 너무 몰랐고 지배계급은 세계와 담을 쌓고 쇄국의 문을 굳게 걸어 잠갔다. 일부 지식인들이 세계를 알았으나 그들은 세력이 약했고 개혁을 성공시키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다. 그래서 조금 빨리 변한 일본의 제국주의에 치명적 침탈을 당한 것이다.

오늘날과 같이 세계화된 세상에서 세계와 담을 쌓고 지내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정도로 세계는 열려 있어서 이제 이러한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놀랍게도 한국을 포함하여 세계의 국민들은 세계를 잘 모른다. 알고 있다 해도 그것이 자신의 이해에 별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해관계가 있다 해도 국가가 국내 문제에 더 힘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립주의가 성행하는 것이다. 심지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그것은 미국이니까 용인되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해도 미국의 헤게모니 지배에는 영향을 끼치지언정 미국 자신의 자존과 부강에는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다. 그러나 한국과 같은 중소국, 특히 이런 지정학적 위치에 놓여 있는 국가는 다르다. 조금만 방심해도 운명이 바뀌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국은 누구보다 국제사회의 흐름을 먼저 간파하고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전략적 사고와 전략적 대응이 되지 않는다면 한국의 앞길은 항상 가시밭길이고 항상 전전공공할 수밖에 없다. 글로벌 체스판에서 살아남기 위해 헤게모니를 꿈꾸는 국가보다 더 전략적이고, 더 용의주도하고, 더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동아시아의 헤게모니 발흥에 대한 한국의 대응은 미시적이고 거시적인 두 가지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즉, 한반도에서 세계를 보고, 글로벌한 차원에서 한반도를 내려다보는 것이다. 물론 이 둘을 동시에 같이 보아야 한다. 지금 글로벌 차원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가 이미 시작이 되었다. 중국이 신형대국관계를 중국의 가장 중요한 대미관계의 축으로 설정했을 때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봐야 한다. 그 결말은 엘리슨이 얘기한 것처럼 투키디데스의 함정이 되어서 전쟁으로 귀결될지는 두고 봐야 하겠지만⁵⁹⁾ 중국은 발흥하는 헤게모니로서 미국에 도전장을 던진 이상 이 싸움은 결말이 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 결말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적어도 50년 이상 가는 긴 싸움이 될 것이다. 중국이 글로벌 헤게모니로 도약하기 위한 싸움을 지난 100년 동안 준비해 왔다는 필즈베리(Pillsbury)의 주장은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이다.⁶⁰⁾ 이러한 국제적 차원에서의 미·중 간의 경쟁이 세계 모든 국가의 외교정책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한반도에서의 변화도 이 구조가 항상 상수로서 작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동아시아 지역적 차원에서 볼 때 4개의 갈등 발화지점이 있다. 그것은 한반도, 동중국해, 대만해협, 남중국해 등이다. 이 모든 지역의 갈등 시나리오에 중국이 직간접적으로 개입되어 있다. 미국은 직접 당사자는 아니나 이 지역에서 모든 문제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한반도에서 남·북한, 미국, 중국이, 동중국해에서 일본, 중국, 미국이, 대만 해협에서 중국, 대만,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미국이 연관된 그야말로 ‘거대한 잠재적 화산대’이다. 미·중의 헤게모니 경쟁은 일단 이 화산대의 어느 한곳에서 발화될 가능성이 크다. 상대적으로 한반도와 동중국해가 미중의 직접 개입의 가능성이 다른 두 곳보다는 작다고 할 수 있지만 사태의 진전에 따라 어떤 형태로든지 미·중의 직접 충돌의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한국으로서는 당연히 한반도에서의 급변사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나 다른 곳에서의 사태 진전이 한반도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는 만큼 이들 지역에 대한 주의를 한시도 늦추어서는 안 된다. 현재로서 가장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바로 남중국해이다. 이 지역은 중국과 미국, 그리고 이 지역 국가들의 이해가 너무나

59) Graham Allison, *Destined For War: Can America And China Escape Thucydides's Trap?* (New York, NY: Houghton Mifflin Harcourt Publishing Company, 2017).

60) Michael Pillsbury, *The Hundred-Year Marathon* (New York: Henry Holt and Company, 2015).

침예하게 갈려 있고, 중국이 매우 공세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발화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갈등의 화산대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도 이것의 쓰나미에 피해를 볼 가능성이 커진다.

국제체제에서 헤게모니 체제의 출현이 불가피하다 해도 그것은 한국의 능력을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에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 다만 첫째, 향후 50여 년 안에 미국적 질서가 중국적 헤게모니 질서에 완전히 자리를 물려주는 그런 대변환은 일어날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 그러나 미·중의 헤게모니 쟁탈전이 치열해질수록 그 과정에서 국제 질서의 안정성은 취약해질 것이고 그 속에서 갈등의 발화점에서 있는 국가는 위협에 빠질 수 있다. 안정적 헤게모니 질서보다도 불안정한 헤게모니 변화의 시기가 더 위험한 것이다. 지금 동아시아는 이미 이 변화의 시기에 들어섰다. 둘째, 어떠한 헤게모니 체제여도 헤게모니의 두 가지 성질 중 ‘강압에 의한 헤게모니’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과거의 제국주의적 헤게모니 체제의 재출현을 의미한다. 역사가 그 대로 재현되는 법은 없지만 역사의 교훈을 배우지 않는 국가에게는 그 본질이 또다시 재현된다. 지금의 중국은 세계의 보편적 가치와는 다른 중국적 가치를 세계에 투영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중국이 헤게모니를 장악하게 되면 강압적 헤게모니 체제의 출현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이러한 헤게모니 체제하에서는 중국적 특색을 가진 일인 집중의 일당지배체제와 다수의 민주적이며 다원주의적 국가들 사이 국제 협력과 조화 대신 갈등과 대립의 국제체제가 될 수밖에 없다. 냉전체제는 아예 경제체제 자체가 다른 두 블록이 대립하는 체제였다면 다가올 국제체제는 만약 중국 지배체제라면 그 내용은 훨씬 복잡한 국제정치 역학이 작용하는 체제일 수밖에 없다.

2. 문명적 지역선도 국가

향후 예상되는 이러한 미래 국제체제의 발전 과정에서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한국은 ‘문명적 지역선도 국가’로 발돋움해 나가야 한다. 이것은 선진문명으로 지역을 이끌어가는 국가를 의미한다.⁶¹⁾ 향후 헤게모니 경쟁도 누가 더 ‘문명적’인가로 결정된다. 퍼거슨은 1500년 이래 세계를 선진국과 후진국

으로 가른 문명의 요소로 다음 여섯 가지의 핵심요소를 꼽았다. 즉, 경쟁, 과학 혁명, 재산권, 현대의학, 소비사회, 작업윤리 등이다.⁶¹⁾ 이러한 여섯 가지의 요소는 21세기에든 여전히 유효하지만 향후 21세기 중반을 향해가는 과정에서의 헤게모니 경쟁은 기본적으로 문명사회 간의 경쟁이고 그것도 누가 더 첨단 문명 사회이냐의 경쟁일 것이다. 이것은 비단 헤게모니 경쟁국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영향을 주고, 또 받는 일단의 국가들까지를 포함한다. 한국도 당연히 여기에 포함된다. 글로벌한 차원에서든 동아시아 지역적 차원에서든 한국은 서로 경쟁하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의 국가와 등을 맞대고 있다. 불가피하게 헤게모니 경쟁의 와중에 있게 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문명국가는 정체, 물질적 기반, 창의적 기반에서 진화적 요소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갈려진다. 여기에서 정체는 거버넌스(governance)의 문제이다. 물질적 기반은 군사력과 경제력이 주된 척도이고, 창의적 기반은 첨단 기술력과 문화를 말한다. 헤게모니 국가는 국제체제에서 특히 물질적 기반을 중심으로 한 위계적 질서와 관련된 것이다. 문명국가는 따라서 물질적 기반, 특히 군사력의 척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일 필요는 없지만, 헤게모니 국가는 군사력이 최강인 국가이어야 한다. 헤게모니 국가가 반드시 선도적 문명국가일 필요는 없다. 그러나 많은 경우 선도적 문명국가가 헤게모니 국가일 때가 많았다. 이것을 한국에 적용해 본다면 한국은 현실적으로 주변 국가들과 헤게모니 경쟁의 상대는 될 수 없을지 모르지만 문명국가로서 일정한 역할과 기여를 할 수는 있을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힘의 크기에 의해서 균형을 설명하는 것과는 다르다. 비슷한 물리적 힘을 가진 국가가 문명적 척도로는 확실히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문명적으로 선도하는 국가는 국제정치에서 무형의 영향력이 훨씬 클 수 있고 그것이 21세기 국제정치에 힘을 발휘한다.

앞서 지적한 세 가지 요소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정체는 거버넌스

61) 문명을 국제정치에서 분석의 단위로 사용해 분석가들의 눈을 뜨게 한 학자는 새뮤얼 헌팅턴이다. 그는 국가가 아니라 문명이 국제정치에서 갈등과 전쟁을 촉발하는 중요한 요소로 보았다. 본고에서는 그러나 문명을 국제체제의 한 단위로 보려는 것이 아니고 국가가 발전하는 중요한 인자로 보려는 데서 기본적으로 시각이 다르다. Samuel Huntington, *The Clash of Civilizations and the Remaking of World Order* (New York, NY: A Toughstone Book, 1997).

62) Niall Ferguson, *Civilization: The West and the Rest* (Penguin Books, 2011).

의 문제인데 특히 21세기 정치는 국민의 기본권을 확실히 보장하는 민주적 가치가 고도로 발현되는 사회이냐의 문제이다. 이러한 사회는 특히 자체 국가의 문제뿐만 아니라 범지구적 문제에도 가치를 공유하는 사회이다. 기후, 환경, 인종, 종교, 질병, 기아, 재난 등에서 범지구적 문제에 공공재를 기꺼이 제공하는 가치가 내재되어 있는 사회이다. 여기에 깨어 있는 사회가 문명사회이고 21세기 국제사회를 선도한다. 선도적 문명국가라면 당연히 이러한 문제에 대해 세계를 이끌 수 있어야 하고, 더욱이 세계가 필요로 하는 공공재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헤게모니를 꿈꾸는 국가도 마찬가지로 동의에 의한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라면 앞으로 범지구적 문제에 대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물질적 기반은 군사력과 경제력이다. 창의적 기반은 고도의 첨단 기술력이고 문화이다. 정체를 포함하여 이 세 가지 기반은 서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정체는 가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창의적 기반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고, 물질적 기반 또한 창의적 기반 없이는 이루어지기 힘들기 때문이다. 문명국가와 패권국가는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다. 문명국가이면서 패권국가일 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동의에 의한 리더십이 생긴다. 문명국가가 아닌 패권국가는 강제에 의존하게 되어 ‘새로운 제국주의’가 탄생할 가능성이 크다.

동아시아 지역을 볼 때 미국은 현재 문명국가이며 헤게모니 국가이고, 일본은 문명국가이며, 중국은 잠재적 패권국가이다. 이러한 구도에서 한국의 지향점은 분명해진다. 즉, 문명국가를 지향해야 하고, 할 수 있다. 정체, 물질적 기반, 창의적 기반에서 최대한 진화적 요소를 발현하는 국가는 지향해 볼 수 있는 것이다. 21세기는 헤게모니전쟁에 의해서 헤게모니 변환이 이루어지기 힘들게 되어 있다. 따라서 국제체제는 어느 국가 하나가 완벽하게 헤게모니를 갖는 독자적 헤게모니 국가의 출현도 사실상 어렵다.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강한 헤게모니 파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문화와 가치의 측면에서 상호 비슷한 국가끼리 자발적 동의에 의해서 그룹을 형성하면서 국가 간의 문제를 조정할 뿐 아니라 범지구적 문제를 해결하는 ‘그룹 헤게모니 체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문명국가로서의 요소인 가치와 문화가 중요하고, 그것을 보다 창의적으로 발전시킬 때 선도적 국가가 되는 것이다. 한국은 바로 이러한 점에서 문명적으로 보다 선도적인 국가를 지향하고 그룹 헤게모니 체제 속에서 일정 정도 영향력을 가지는 국가가 될 수 있다. 동아시아 지정학에서 이러한 국가라면 자

존을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이나, 국제정치 전반에서도 일정한 영향을 갖는 국가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문명적으로 지역을 선도해 나가려면 무엇보다도 세 가지 점에서 획기적 진보를 이룩해야 한다. 첫째는 국내 정치적 거버넌스에서 선진 사회를 만들어 내야 한다. 한국은 한 세기에 식민주의와 분단, 동족상잔의 전쟁을 넘어, 권위주의체제를 경험하고 이를 극복해서 민주주의 성장통을 앓아가면서 민주화를 얻어냈다. 한국의 민주주의의 성장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성장통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것이 극복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있지만, 그것이 극복되고 민주제도의 안정성을 바탕으로 개인의 자유와 가치가 무한히 발현되는 선진 민주주의 국가로 가지 않는 한 한국의 미래가 없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한국이 성숙되고 안정된 민주주의를 가질 때 그야말로 동아시아에서 작지만 강한 나라가 되는 것이다. 한국이 세계 경제의 신화를 이룬 나라일 뿐 아니라 세계 민주주의의 신화를 이룬 나라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될 때 헤게모니가 아닌 세계의 많은 국가들은 한국을 하나의 지향 모델로 삼을 것이다. 동아시아의 어느 잠재적 헤게모니 국가도 그런 한국을 물리적으로 강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둘째, 한국은 물질적 기반에서도 특히 진화적 요소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군사력과 경제력의 절대적 파워에서는 기존 초강대국들에 비해 약하지만 작지만 강하고 미래형의 물질적 파워를 구축할 수 있다. 군사력에 있어서는 미래형 군대를 만들고 특히 방위산업에서 우리 경제력이 접목될 수 있는 부분을 집중 육성할 수 있다. 경제력은 첨단 4차 산업혁명을 통해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한국은 연구개발비에 관한 한 세계에서 가장 많은 투자를 하는 나라이다. 이러한 연구개발비를 향후에도 계속해서 투입해야 한다. 한국 경제는 몇몇 산업들에서 우리의 첨단성, 즉 비교 우위가 사라지면 미래는 중국 경제에 종속될 가능성이 있다. 그 첨단성을 어떻게 계속 유지하느냐가 관건이다. 이것은 그냥 기업에만 맡겨놓을 일이 아니다. 중국은 전적으로 국가 주도의 경제로 세계의 경제 헤게모니를 장악하려 하고 있다. 미국과 같이 완전히 자본주의 경제도 정부가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적 과제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미 세계 경제는 그냥 시장에 맡겨놓는 세계화 시대가 아니다. 세계화주의자들의 전망과는 달리 세계화 시대에 국가의 역할은 더 커지고 있다. 실리

콘 벨리는 그냥 기업이 만들어 낸 것이 아니다. 국가와 기업의 절묘한 조화가 만들어 내는 창의적 합작품이다. 중국은 그것을 국가 주도로 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은 ‘한국적 실리콘 벨리’를 만들어 내야 한다.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가 함께 지향해야 할 방향이 바로 이것이다.

셋째, 창의적 기반에 관한 것이다. 한국은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는 세계의 헤게모니 국가가 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러나 문화적으로는 세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문화 헤게모니는 아니라 할지라도 문화선도국은 될 수 있다. 이것은 국가 이미지를 바꾸고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진다. 한국의 K-Pop 문화, 영화 및 예술 및 이와 연관된 산업 및 의학이 어우러져 독특한 한국의 문화 이미지를 이루고 이것의 경제적 파급효과로 확산된다. 문화 선진국은 문명의 척도이다. 문화를 파는 국가가 진정한 선진국이다. 한국이 문화를 파는 국가가 된다는 것은 3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이 실현되고 있고, 그것도 그냥 파는 정도가 아니라 세계 문화의 한 부분을 선도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이는 것이다. 그것은 국가 주도의 산물이 아니다.

한국이 문명적 지역선도 국가로서 스스로의 자존을 지키면서 세계 평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한국의 국가적 목표에 부합한다. 한국이 오랜 역사에서 이러한 이상을 실현한 적은 없다. 지정학적인 숙명 속에서 지역의 헤게모니 국가들에게 종속되거나 수탈당한 역사가 대부분이었다. 현대에 들어서 그 또한 숙명적으로 지역 외의 세력인 미국과 손잡게 되었을 때 비로소 발전이 시작되었다. 지난 수십 년의 한국의 성장과정에서 한국 스스로도 몰랐던 위대한 DNA가 있다. 그것은 숙명적 패배주의가 아니라 진취적 도전주의이다. 이를 통해 세계 유일의 역사, 즉 저개발국이 선진국에 진입하는 성과를 만들어 냈다. 그러나 그런 성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의 미래는 불확실하고 불안정하다. 향후 국제체제의 근본적 변화와 숙명적 지정학이 아직도 한국의 앞길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의 도약이 필요하다. 이 도약은 문명적 선도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도약이다. 이번의 도약은 만약 성공한다면 한국은 자강능력을 가진 동아시아의 국가가 될 것이다. 향후 어떠한 헤게모니 체제가 등장하더라도 강압에 의해 국가의 자존이 흐트러졌던 과거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자강력을 가진 문명 선도국가인 한국은 지난 2천 년의 역사에서, 그리고 세계사에서 단 한 번도 없는 그런 위대한 여정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강동진. 『일본근대사』 (파주: 한길사, 1985).
- 리처드 코치·크리스 스미스 저, 채은진 옮김. 『서구의 자멸: 서구문명을 만든 6가지 중심 사상의 붕괴』 (서울: 말글빛냄, 2008).
- 빌 클린턴 저, 정영목·이순희 옮김. 『빌 클린턴의 마이 라이프』 (폴무래, 2004).
- 요시자와 세이이치로 저, 정지호 옮김. 『중국근현대사 1: 청조와 근대 세계』 (서울: 삼천리, 2013).
- 월 듀런트 저, 왕수석·한상석 옮김. 『문명이야기: 동양문명 1-2』 (서울: 민음사, 2011).
- 유이사 다케오 저, 신미원 옮김. 『세계 5대 제국 흥망의 역사』 (서울: 일빛, 1998).
- 케리 브라운 저, 김홍규 옮김. 『현대중국의 이해』 (서울: 명인문화사, 2014).
- 현인택. “탈냉전과 평화.” 이상우·하영선 공편저. 『현대국제정치학』 (서울: 나남출판, 1992).
- 후지와라 아키라 저, 엄수현 역. 『일본군사사』 (서울: 시사영어사, 1994).
- W. G. 비즐리 저, 장인성 옮김. 『일본 근현대 정치사』 (서울: 을유문화사, 1999).
- W. G. 비즐리 저, 정영진 옮김. 『일본제국주의 1894-1945』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13).
- Abrams, Elliot. “Trump the Traditionalist: A Surprisingly Standard Foreign Policy.” *Foreign Affairs*, July/August 2017.
- Allison, Graham. “China vs. America.” *Foreign Affairs*, Vol. 96, No. 5 (September/October 2017).
- _____. *Destined For War: Can America And China Escape Thucydides’s Trap?* (New York, NY: Houghton Mifflin Harcourt Publishing Company, 2017).
- Anderson, Perry. *The H-Word: The Peripeteia of Hegemony* (London. New York: Verso, 2017).
- Brooks, G Stephen, and Wohlforth C. William. “The Rise and Fall of the Great Powers in the Twenty-first Century.” *International Security*, Vol. 40, No. 3 (Winter 2015/16).
- Buss, A. Claude. *Asia in the Modern World*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1967).
- Calleo, P. David. *Beyond American Hegemony* (New York: Basic Books, 1987).
- Cameron, E. Meribeth, Thomas H.D. Mahoney, and George E. McReynolds E George. *China, Japan and the Powers* (New York: The Ronald Press Company, 1952).
- Coase, Ronald, and Ning Wang. *How China Became Capitalist*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13).

- Connaughton, Richard. *Rising Sun and Tumbling Bear: Russia's War With Japan* (London: Cassell, 2003).
- Ferguson, Niall. *Empire: The Rise and Demise of the British World Order and the Lessons for Global Power* (New York, NY: Basic Books, 2002).
- _____. *The West and the Rest* (Penguin Books, 2011).
- Frieden, A. Jeffrey. *Global Capitalism: Its Fall and Rise in the Twentieth Century*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Ltd., 2006).
- Gilpin, Robert. *War and Change in World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1).
- Halfer, Stefan. *The Beijing Consensus: How China's Authoritarian Model Will Dominate the Twenty-First Century* (New York: Basic Books, 2010).
- Huang, Yasheng. *Capitalis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 Huntington, Samuel. *The Clash of Civilizations and the Remaking of World Order* (New York, NY: A Toughstone Book, 1997).
- Ikenberry, G. John. *Liberal Leviathan* (Princeton and Oxford: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1).
- _____. "Democracy, Institutions, and American Restraint." In G. John Ikenberry (ed.). *America Unrivaled: The Future of the Balance of Power*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2002).
- _____. "Introduction." In G. John Ikenberry (ed.). *America Unrivaled: The Future of the Balance of Power*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2002).
-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The Military Balance 2017* (London: Arundel House, 2017).
- Joffe, Josef. "Defying History and Theory: The United States as the 'Last Remaining Superpower'." In G. John Ikenberry (ed.). *America Unrivaled: The Future of the Balance of Power*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2002).
- Kennedy, Paul. *The Rise and Fall of Great Powers: Economic Change and Military Conflict from 1500 to 2000* (New York: Random House, 1987).
- Keohane, Robert. *After Hegemony: Cooperation and Discord in the World Political Econom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4).
- Keohane, Robert, and Joseph S. Nye. *Power and Interdependence*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1977).
- Kindleberger, Charles. *The World in Depression 1929-1939* (Berkeley, Los Angeles, and Lond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3).

- Krasner, D. Stephen. "State Power and the Structure of International Trade." *World Politics*, Vol. 28 (April 1976).
- Kupchan, A. Charles, "Hollow Hegemony or Stable Multipolarity?" In G. John Ikenberry (ed.). *America Unrivaled: The Future of the Balance of Power*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2002).
- Mastanduno, Michael. "Incomplete Hegemony and Security Order in the Asia-Pacific." In G. John Ikenberry (ed.). *America Unrivaled: The Future of the Balance of Power*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2002).
- Mearsheimer, John. "Back to the Future: Instability in Europe After the Cold War." *International Security*, Vol. 15, No. 1 (Summer 1990).
- _____.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New York, NY: W. W. Norton & Company, Inc., 2001).
- Modelski, George. *Long Cycles in World Politics* (Seattle, Washington: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85).
- Own, John M. IV. "Transnational Liberalism and American Primacy: or, Benignity in the Eye of the Beholder." In G. John Ikenberry (ed.). *America Unrivaled: The Future of the Balance of Power*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2002).
- Pillsbury, Michael. *The Hundred-Year Marathon* (New York: Henry Holt and Company, 2015).
- Risse, Thomas. "U.S. Power in a Liberal Security Community." In John Ikenberry (ed.). *America Unrivaled: The Future of the Balance of Power*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2002).
- Russett, Bruce. "The Mysterious Case of Vanishing Hegemony: Or, Is Mark Twain Really Dead?"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39, No. 2 (Spring 1985).
- Subramanian, Arvind. *Eclipse: Living in the Shadow of China's Economic Dominance* (Massachusetts, NW: PIIE Press, 2011).
- Terril, Ross. *The New Chinese Empire* (New York: Basic Books, 2003).
- U.S. House of Representatives. "China's Technological Rise: Challenges to U.S. Innovation and Security." Hearing, Subcommittee on Asia and The Pacific, Committee on Foreign Affairs, One Hundred Fifteenth Congress, April 26, 2017.
- US Department of Defense, Annual Report to Congress: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7, May 15 2017.
- W. G. Beasley. *The Modern History of Japan*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63).
- Walt, M Stephen. "Keeping the World "Off-Balance": Self Restraint and U.S. Foreign

Policy.” In G. John Ikenberry (ed.). *America Unrivaled: The Future of the Balance of Power*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2002).

Waltz, N. Kenneth. “Structural Realism after the Cold War.” In G. John Ikenberry (ed.). *America Unrivaled: The Future of the Balance of Power*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2002).

Wohlforth, C. William. “U.S. Strategy in a Unipolar World.” In John Ikenberry (ed.). *America Unrivaled: The Future of the Balance of Power*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2002).

〈언론〉

『연합뉴스』.

KBS.

〈인터넷 자료〉

<http://www.wipo.int/publications/en/series/index.jsp?id=35>.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NY.GDP.MKTP.KD.ZG?end=2016&locations=CN&name_desc=false&start=2000&view=chart.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NY.GDP.MKTP.KD.ZG?end=2016&locations=CN&name_desc=false&start=2000&view=chart.

https://ko.wikipedia.org/wiki/토포의_개혁; https://ko.wikipedia.org/wiki/변정_개혁.

<https://www.sipri.org/sites/default/files/Milex-local-currency.pdf>.

SIPRI Yearbook 2017, <https://www.sipri.org/sites/default/files/Milex-constant-2015-USD.pdf>.

The World Bank, GDP Growth (annual %).

[ABSTRACT]

The History of Hegemony in East Asia and South Korea's Future

In-Taek Hyun | Korea University

The East Asian history reflects the rise and fall of the great powers — hegemony. In particular, dramatic changes in terms of hegemony have been taking place in East Asia in the nineteenth and twentieth century. After the Opium War in the mid-nineteenth century, China lost its hegemonic power in this region, while Japan emerged as a new power with its successful ‘Meiji Restoration.’ Moreover, Japan became a new hegemonic power after its victory in the Sino-Japanese and the Russo-Japanese War in 1894 and 1904 respectively. However, Japan lost its hegemonic status when it defeated in the Pacific War with the United States in 1945. Then, since the post-Cold War, the United States has maintained its hegemonic status in world affairs.

Now, with the rise of China in the 21st century, furious debates have been going on in the academic community of international politics on whether China would and could become a next hegemon and what would be the likely result of this. As has been seen, in the East Asian history, South Korea was always the victim of hegemonic transformations. The crucial question for South Korea, therefore, should be: how it can maintain and enjoy stability, peace, and prosperity as an independent nation in the coming hegemonic change.

In this regard,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1) the concepts and theoretical developments of hegemony; 2) the major characteristics and

causes of the rise and fall of hegemonies existed in East Asia — China, Japan, and the United States in the 19th, 20th, and 21st century respectively; 3) the prospects of the rise of China in the 21st century; and 4) South Korea's future strategy for its survival and prosperity in the coming hegemonic change.

This study concludes that it is inevitable that a new hegemon is coming, but it is less likely that China will replace the United States as a new hegemon within the next 50 years. In this process, however, the hegemonic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will be increasingly severer than now. It will inevitably bring about enormous instability and uncertainty in international politics. South Korea, therefore, should prepare for any possibility for the future, either the rise of the benign hegemon or the imperialistic hegemon.

In doing this, South Korea should pursue a 'civilized regional power,' that is, a politically and economically more advanced, militarily more strong, and culturally more mature power in this region. With this, South Korea could become a more independent, viable, future-oriented, and leading country, becoming one of the 21st civilized powers in the world.

Keyword: hegemony, the great powers, American hegemony, the rise of China, South Korea's strategy

투고일: 2017년 10월 30일, 심사일: 2017년 11월 2일, 게재확정일: 2017년 12월 1일

